

연합회+2025-7

YWCA생명비전연구보고서



# 청소년 주도의 탈핵기후생명운동

연구참여자 | 박혜경, 이현아, 김보미  
방하연, 신문철, 오은지, 이어진, 장현담, 진영인, 진해인

발행일 | 2025.04.11



(사)한국YWCA연합회

## YWCA생명비전연구위원회는

---

한국YWCA가 지난 100여 년간 추구해온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에 기반해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생명비전연구는 나이, 성별, 국적, 전문 분야가 다양한 연구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문 연구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연구과정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연한 방식으로 연구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연구를 통해 시민 사회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넓은 시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YWCA생명비전연구위원회는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연구진 소개

## 연구자

### 박혜경

- 청소년 주도의 탈핵기후생명운동 연구책임
- YWCA생명비전연구위원회 위원
- 대만 장영대학교 신학과 교수
- YWCA “김필레 선생의 여성 자립 교육 사상과 그의 실천 연구” 발표(2013)

### 이현아

- YWCA생명비전연구위원회 위원
-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 여민교회 담임목사

### 김보미

- YWCA생명비전연구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 YWCA 제2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 수상(2023)

**연구원** - 설문지 기획 참여, 설문대상 모집

**방하연**

**신문철**

**오은지**

**이어진**

**장현담**

**진영인**

**진해인**

**연구 실무담당자** - 연구 기획 및 지원

**박은실**

**홍수진**

**유은비**

# 목차

---

I. 서론	
1. 연구 목적 .....	5
2. 이론 배경 .....	6
3. 연구 방법 .....	12
II. 분석	
1. 기후위기 인식과 정서	
1) 기후위기 인식 .....	14
2) 기후위기 정서 .....	19
3) 종합 .....	23
2.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와 주체성	
1) 개인의 실천 .....	23
2) 사회와 정책 .....	27
3) 참여와 주체성 .....	30
4) 종합 .....	32
3. 탈핵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1) 핵발전 관련 인식 .....	32
2) 종합 .....	36
4. 청소년이 그리는 미래 사회	
1) 미래전망 .....	36
2) 종합 .....	39
III. 결론 .....	41
IV. 부록	
1) 설문지 .....	47
2) 설문 답변 .....	52

# 청소년 주도의 탈핵기후생명운동

## I. 서론

### 1. 연구 목적

기후위기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한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산업화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 변화를 가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2024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에서 제29차 유엔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가 개최되었다. 총회의 주제는 “녹색 세계를 위한 연대(In Solidarity for a Green World)”였으며, 190여 협약 당사국에서 4만여 명이 참석하였다.<sup>1)</sup> 이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 1위에 대한민국이 올랐다.<sup>2)</sup> 이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기후 약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핵(원자력)<sup>3)</sup>에너지의 위험성과 방사성 폐기물 문제로 인한 환경적 위협 역시 세계적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와 같은 사례는 탈핵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켰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전히 핵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핵발전소 건설은 비합리적이며 가장 비싸고 느린 에너지 생산 방식이다.<sup>4)</sup> 평균 건설 기간만 15년이 걸리는 핵발전소의 신설은 긴급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인 대안이 아닐뿐더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통해 드러났듯이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역시 불가능하다. 오히려 바다로 유입된 방사능 오염수는 생태계를 교란하여 해조류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를 저해하여 기후위기를 강화한다.<sup>5)</sup> 정부가 주도하는 핵발전소의 유지와 신설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의 대안이 아닐 뿐 아니라, 전 세계적

1) 박미영, "한화진 탄핵위원장, COP29 참석...尹정부 기후위기 해결 노력 소개," *뉴시스*, 2024년 11월 11일, <https://v.daum.net/v/20241111145058325>

2) 서어리, "한국, 최고 기후약당 등극... '오늘의 화석상,'" *프레시안*, 2024년 11월 20일, <https://v.daum.net/v/20241120130652394>

3) 원자력(atomic force)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힘을 가리키며, 이는 핵력(nuclear force)으로 묶여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분열시킬 때 방출되는 핵에너지(nuclear energy)에 대한 잘못된 용어이다(최무영, "핵을 원자력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레프트21*, 2011년 3월 24일).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원자력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바로잡고, 핵에너지, 핵발전, 핵발전소, 핵오염수로 기술한다.

4) 박기용, "기후위기에 원전? 비싸고 느린 '라라랜드'일 뿐," *한겨레*, 2024년 11월 25일,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68932.html](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68932.html)

5) 김인성, "핵오염수·온난화로 수산자원 위기... '바다숲 해조류 주목해야,'" *환경일보*, 2024년 12월 2일,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114>

으로 진행되는 탈핵 흐름과도 대치된다.

이후 위기와 핵발전 문제는 현재와 미래 사회의 주인으로서 주요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모든 세대가 청소년들과 함께 다뤄야 할 중요한 담론이다.<sup>6)</sup>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가 주로 전문가의 이론이나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청소년을 기후위기 담론의 핵심 주체로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탈핵 운동의 실천 주체로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핵발전, 탈핵 운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회를 구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 및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연구가 이러한 변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2. 이론 배경

대한민국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며,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 적용 기준이 상이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한다.<sup>7)</sup> 직장인이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24세 미만의 사람들도 청소년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주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사람들이 청소년층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어떻게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

### 1) 탈핵·기후위기와 청소년의 주체성: 교육을 중심으로

대부분 교육 현장에 있는 청소년에게 몸, 마음, 정신의 주체성 확립은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제시와 참여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탈핵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교육은 문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주체적인 실천에 동기를 부여하며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따라서 핵발전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청소년 주체성의 담론은 교육을 중심으로 자율적 배움과 세계에 대한 배움이라는 영역에서 볼 수 있다.

자율적 배움은 청소년을 기후위기에 대한 주체적 담지자로 만든다. 영국에서 공교육과 페다고지를 연구하고 가르친 거트 비에스타(Gert Biesta)는 *세계 중심의 교육 (World-Centred Education)*에서 교육의 주체자로서 청소년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교육의 내용으로 세계를 강조한다.<sup>8)</sup>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존재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자율적 배움을 강조한다. 청소년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화된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자율적 교육 환경 속에서 기후위기 활동의

6) 현명주, 김남수, "경계의 관점으로 본 청소년의 기후결석시위: 정체성, 학교 교육, 시위문화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34권, 2호(2021): 151-166

7)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항

8) Gert Biesta, *World-Centered Education: A View for the Present* (New York: Routledge, 2021).

주체자가 된다. 교육의 내용은 비에스타가 제시한 대로 세계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개인 학생과 커리큘럼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율적 배움이 과도한 자율성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세계 중심의 교육이다. 세계를 봄으로써, 자아의 자율성이 귀중하듯 타자들의 자율성 역시 존중받아야 함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자율적인 배움의 내용으로 기후위기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날 시의성을 지닌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독일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교육의 본질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출생(natality)에서 찾는다.<sup>9)</sup> 이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또한 아렌트는 “우리가 세상을 책임질 만큼 사랑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점”에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이때 교육의 내용은 삶의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 숙고하게 해야 한다. 교육자는 자신의 배운 것을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하나, 새 세대의 세상은 교육자가 배운 세상과 이미 다르다. 또한 새 세대 역시 구세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과 배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진행은 현재와 미래를 넘어 모든 세대가 지니고 있는 공통의 주제이며, 개인적인 자유에 제동을 가하면서 공동의 선을 위한 교육이 된다.

중세 시대의 역사 연구가 린 화이트(Lynn T. White, Jr.)가 서양 기독교인들에게 생태학적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한 것은 1967년이였다.<sup>10)</sup> 기독교 역사에서 생태학적 위기의식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공론화되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세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거대 담론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현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청소년들은 기후 위기를 인식하며, 기후 위기에 대한 변혁을 이끌어갈 담지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 2) 탈핵·기후위기와 청소년의 주체성: 역동적 행동자로서

청소년의 주체성은 기성세대와의 구조적인 권력 차이로 인해 위협받기도 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는 제4차 YWCA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언론이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청소년의 이미지만을 강조하며, 광고나 소비의 대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적

9) Hannah Arendt, "Crisis in Education," in *Between Past and Future: Six Exercises in Political Thought*.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1).

10)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 no. 3767 (1967): 1203-1207, doi: 10.1126/science.155.3767.1203.

이고 배제적인 시선과 청소년을 새로운 스피커나 소비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도, 나아가 청소년 당사자의 주체성을 파괴하고 사업의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시도들을 문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을 기후 위기에 대한 실천적 담지자이자 주도적 학습자로 인식하는 특수성과 포용성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부족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를 해체하여 새로움을 관철해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이동연은 청소년을 "저항하는 이들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순응하는 이들인가?"라는 질문으로 청소년의 주체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sup>11)</sup> 특히, 2008년 5월, 10대들에 의해 시작된 '촛불 소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선도하였고, 어른들이 결국 이 촛불 문화제에 동참하였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오류들을 기성세대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주체적이고 직감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미래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인식하며, 현 상황의 해체를 요구한다.

기후위기는 현존하는 어른들과 그 전 세대가 일으킨 문제의 결과이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문제의식도 없었고 해결 방안도 찾지 않았다. 기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은 과거의 습관과 사고를 해체하며 나름의 저항 방식을 가지고 현재의 위기에 대항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당시 15세였던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후를 위한 수업 거부"라는 슬로건 아래 8월에 단독 시위를 시작했으며, 12월에는 유엔 기후 정상회담에서 연설을 진행하였다.<sup>12)</sup> 당시 툰베리의 시위에 동참하는 나라와 학교들이 생겨났으며, 이는 "그레타 효과"라고 불린다.<sup>13)</sup>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은 역동적인 행동자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 3) 탈핵·기후위기와 청소년의 주체성: 법과 소송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청소년과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기후소송 제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와 기성세대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은 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포르투갈 청소년들은 2017년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66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유럽 32개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생명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 유럽의 32개 국가 정부

11) 이동연, "청소년은 저항하는가? 청소년 주체형성의 다중성 읽기," *오늘의 문예비평* 2009 봄 통권, 72호 (2009): 23-45.

12) Damian Carrington, "'Our leaders are like children,' school strike founder tells climate summit," *The Guardian*, 2018년 11월 10일,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dec/04/leaders-like-children-school-strike-founder-greta-thunberg-tells-un-climate-summit>

13) 현명주, 김남수, "경계의 관점으로 본 청소년의 기후결석시위," 153.

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2020년 3월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5~22세 아동·청소년 16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우리 아이들의 신뢰(Our Children's Trust)'가 지원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을 허용해 온 주 정부 정책이 기후위기에 영향을 끼쳤고, 헌법에 명시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23년 8월 몬태나주 법원은 화석연료 사업을 승인할 때 기후영향평가를 금지하는 몬태나주 법률 조항이 주 헌법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대하여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기된 4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진행되었는데, 그 중 첫 소송을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2020년에 제기했다. 기후위기를 인식한 청소년들의 모임으로 시작한 '청소년기후행동'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과 함께 결석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후 대응 활동을 시작했고, 2020년 3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개정 전, 개정 후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청구인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기후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이 지난 올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까지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후소송을 제기한 각국의 청소년들은 공통으로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게 기여한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온실가스 배출이 청소년이 살아가는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이 지연될수록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책임이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한다. 또한 청소년은 더욱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서 살아가야 할 당사자임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제외되고, 어른들의 의사결정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작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강도 높게 감수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인간 생활 전반의 자유 자체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자유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미래세대가 모두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 상황에서 투표권이 없어, 자신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을 수도 없는 청소년들이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소송제기였고, 청소년이 중심이 된

기후 소송은 이제 청소년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운동에서 보편적이고,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 4) 한국YWCA의 탈핵기후생명운동

한국YWCA는 여성(W)과 청년(Y)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C)'로 대표되는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서 탈핵기후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년과 청소년 운동 등을 진행해 왔다. 그중에서도 탈핵기후생명운동은 핵 발전을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탈핵을 하나님의 창조질서, 즉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3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며 진행되던 탈핵운동을 전국 중점운동으로 선정했다.<sup>14)</sup>

YWCA는 2014년부터 6년간 매주 화요일 명동에서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며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관해 이야기했고,<sup>15)</sup>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고리1호기를 영구 정지시키는데 기여했다.<sup>16)</sup> 또한 지속적인 탈핵운동과 더불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자립, 탄소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 활동까지 확장하고, 이를 탈핵기후생명운동이라고 부르며 현재(2024-2025)까지 중점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sup>17)</sup>

YWCA의 청소년운동조직 Y-틴 역시 기후위기를 중요 담론으로 삼고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계획 및 실행하고 있다. YWCA의 탈핵기후생명운동 활동에 함께 해온 것은 물론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회원대회를 통해 기후위기를 주제로 선정하여 자체 캠페인과 연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위기를 곧 청소년의 위기로 보며 이윤과 성장이 아닌 생명을, 핵발전 없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선배 세대의 책임을 촉구하고 다른 청소년의 동참을 독려하는 등 변화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확립하고 있다.<sup>18)</sup>

#### 5) 선행 연구

청소년의 주체성 형성은 가족 환경, 사이버 환경, 학교 환경, 대중문화 환경 등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레타 효과 이전의 보고서와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을 위한

---

14) 원영희, 구정혜, 서다미, 김흥수, "한국YWCA연합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좌담회," *기독교사상* 760 (2022): 48-81

15) "제1차 한국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한국YWCA연합회*, 2014년 3월 11일, [https://ywca.or.kr/board\\_press/1301/](https://ywca.or.kr/board_press/1301/); "250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 *한국YWCA연합회*, 2020년 4월 28일, [https://ywca.or.kr/activity\\_news/3380/](https://ywca.or.kr/activity_news/3380/)

16) "고리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YWCA 성명서," *한국YWCA연합회*, 2015년 6월 12일, [https://ywca.or.kr/board\\_press/1399/](https://ywca.or.kr/board_press/1399/)

17) "2023 한국YWCA 정책협의회, 탈핵기후생명운동 전국중점운동으로," *한국YWCA연합회*, 2013년 10월 18일, [https://ywca.or.kr/board\\_press/21556/](https://ywca.or.kr/board_press/21556/)

18) "Y-틴과 함께하는 청소년 RE100 : 기후행동," *한국YWCA연합회*, 2022년 9월 15일, [https://ywca.or.kr/activity\\_news/15899/](https://ywca.or.kr/activity_news/15899/)

환경 교육에 치중하였다.<sup>19)</sup>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기후위기에 대한 주체적 참여나 인식 실태에 대한 조사는 미흡했으나, 2020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청소년들의 환경단체 활동 참여, 참여 방안 연구, 청소년 행위 주체성 개념 등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기본적인 기후위기 인식과 실천현황을 다룬 연구로는 김민주, 이성희, 신동훈(2023)이 기성세대가 아동,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과 제안이 미흡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동과 청소년들도 스스로 제약하는 틀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하였다.<sup>20)</sup>

교육의 관점에서는 김종민, 손다정, 남미자(2021)은 기후변화 태도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아우르며 학생들이 지역 생태를 탐구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방향임을 제시했다.<sup>21)</sup> 더불어 이성희, 변성국, 조정림, 신동훈(2023)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반영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참여 보장, 이를 위한 법령 제정과 공간 및 전문 인력 배치 등 사회적 지원의 확대를 제안했다.<sup>22)</sup>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황세영, 강경균, 김남수(2022)가 청소년 주도적 탄소중립의 담론을 끌어내며 청소년들의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sup>23)</sup> 보고서는 청소년의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부족한 현 상황을 지적했지만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기후위기보다는 상쇄된 의미로 기후 담론에 접근하며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었다. 이와 연계하여 황세영(2023)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정책을 제안하는 '탄소중립 정책단 활동'을 연구하여 청소년 중심의 정책 참여 모델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의 당사자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확인했다.<sup>24)</sup> 그러나 이미 시민 참여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소수의 청소년 참여도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

기존의 청소년 관련 연구와 보고서에서는 탈핵 담론이 다뤄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가 핵발전예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고 탈핵 운동에서의 청소년 주체성을 고찰한다는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 또한 오늘날의 생태학적 상황을 기후와 환경이라는 일반적인 접근이 아닌 기후위기라는 관점에서 진단함으로써 시의성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탈핵 담론은

19) 김종민, 손다정, 남미자, "경기도 초·중·고등학생 기후위기 행동의 영향요인 분석: 기후위기 위험인식과 생태시민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9, 4호 (2021): 217-218, doi: 10.30916/KERA.59.4.215.

20) 김민주, 이성희, 신동훈, "아동 권리 관련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아동·청소년 인식 및 대응 활동 참여 실태 조사," *에너지기후변화교육* 13, 1호 (2023): 51~69, doi: 10.22368/ksecce.2023.13.1.51.

21) 김, 손, 남 "경기도 초·중·고등학생 기후위기 행동의 영향요인 분석," 215-242.

22) 이성희, 변성국, 조정림, 신동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참여방안 연구," *에너지기후변화교육* 13, 2호 (2023): 103-124, doi: 10.22368/ksecce.2023.13.2.103.

23) 황세영, 강경균, 김남수,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 0 (2022): 1-309.

24) 황세영, "청소년 기후행동으로서 탄소중립 정책 제안 활동 사례 연구: 행위주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4, 4호 (2023): 115~141, doi: 10.14816/sky.2023.34.4.115

청소년에게 인식과 실천을 위한 지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당사자인 청소년이 어떻게 기후위기와 핵발전, 탈핵운동에 대하여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및 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사회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 1) 조사 도구 개발

설문조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연구 주제를 논의 및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설문 조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영역을 정하였다. 영역별로 연구위원들이 설문 문항을 만들어 제안했고, 이현아 연구위원이 이를 정리 및 종합한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청소년으로 구성된 보조 연구자 7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고, 선택지 표현의 적절성 및 난이도를 검토하여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및 어휘를 수정하거나 선택지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위원들이 연구 목표의 달성을 위해 청소년의 실천과 주체성에 대한 조사 항목을 추가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사회인구학적 배경, 청소년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과 기후위기로 인한 감정 변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개인적 실천, 사회와 정책,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있어 청소년의 주체성, 탈핵에 관한 인식 그리고 청소년이 상상하는 미래로 구성하였다. 영역별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설문조사 영역별 조사항목

영역	문항내용 및 문항수
사회인구학적 배경(4)	나이(1), 성별(1), 거주지(1), 종교(1)
기후위기 인식과 감정(9)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6), 기후위기로 인한 감정 변화(3)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3)	개인적 실천 여부(1), 개인적 실천 방안(1), 개인적 실천의 중요도(1)
정책과 사회(5)	기후위기 원인(1), 우리 사회와 기후위기(3), 기후위기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1)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청소년의 주체성(5)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3),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1), 청소년 참여를 위한 지원(1)
탈핵 인식(6)	핵발전(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5), 기후위기와 핵발전(1)
상상하는 미래(5)	기후위기와 미래(3), 기후위기 없는 미래에 대한 상상(2)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영역에서는 응답자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고, 통계분석에 활용할 목적으로 나이, 성별, 거주지, 종교를 물어보았다. 객관식 문항 위주로 설문을 구

성하였으나 기후 인식 영역의 마지막 문항에서는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체감 온도를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을 선택하는 문항을 두었고, 기후 감정 영역에서는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상태를 적는 주관식 문항을, 상상하는 미래 영역에서는 기후위기가 없는 미래에 대한 상상을 묻는 주관식 문항을 두어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청소년들의 비언어적 인식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의 모집단은 2024년 7월 25일 기준 전국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이다. 목표 표본의 크기는 조사 일정 및 연구 예산을 고려하여 총 300명으로 선정하였으며, 무선 표집을 통한 편의표본추출 방식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하였다. 보조연구자와 연구담당자가 지인 및 YWCA 공식 채널을 통해 전국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59명의 청소년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 중 중복 답변, 조사 참여 시간이 2분미만으로 지나치게 짧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응답을 선택하는 등 불성실한 답변 총 101개를 제외하고 258개의 응답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활용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 조사대상자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의 집단이 79%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31%로 비교적 적었다. 성별 분포는 여성 53%, 남성 47%로 여성이 약간 더 많으나 비교적 균등한 편이다. 조사대상자의 84%가 거주지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고르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강원, 영남, 충청, 호남권은 5%이하에 머물렀다. 종교는 과반수이상(66%)이 무교를 선택했고, 기독교가 4분의 1, 불교가 10% 미만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명 수	비율	구분	명 수	비율	
전체		258	100%	지역	강원권	11	4%
연령	13세(2010년생)	26	10%		수도권	217	84%
	14세(2009년생)	19	7%		영남권	6	2%
	15세(2008년생)	36	14%		충청권	12	5%
	16세(2007년생)	34	13%		호남권	12	5%
	17세(2006년생)	54	21%		종교	기독교	64
	18세(2005년생)	89	35%	불교		24	9%
성별	여성	137	53%	무교		170	66%
	남성	120	47%				
	선택하지 않음	1	0%				

## II. 본론

### 1. 기후위기 인식과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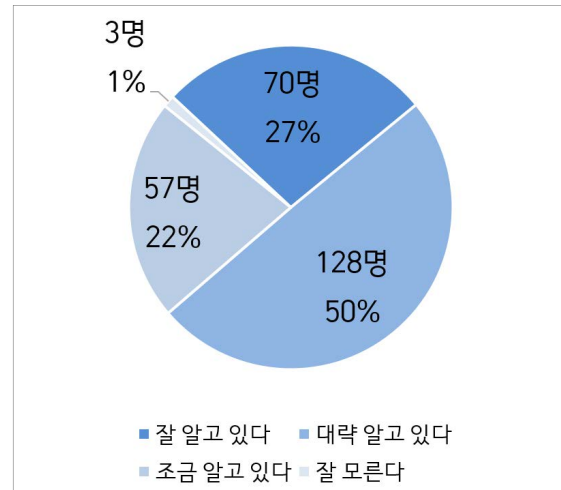
#### 1) 기후위기 인식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조사는 6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설문문의 주제인 ‘기후위기와 청소년의 주체성’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입의 역할을 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9%가 “잘, 대략, 조금 알고 있다”로 답하였다(그림 1). 이 결과를 연령별로 분석해 봤을 때, 중학생의 89%와 고등학생의 71%가 “잘 알고 있다”와 “대략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조금 알고 있다” 또는 “잘 모른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1%, 고등학생 29%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3). 청소년이 가진 종교가 기후위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두고 설문을 분석한 결과, 기독교 청소년 64명 중 88%가 “잘 알고 있다”와 “대략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불교 청소년 24명 중 67%가, 종교를 갖지 않는 청소년 170명 중 74%가 이 두 항목에 동의하였다. 전체적으로 종교의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설문에 참여한 불교 청소년의 숫자가 매우 적어 이를 유의미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림 1> 기후위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표 3>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전체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체		258명(100%)	70명(27%)	128명(50%)	57명(22%)	3명(1%)
연령	중등	81명(31%)	24명(30%)	48명(59%)	8명(10%)	1명(1%)
	고등	177명(69%)	46명(26%)	80명(45%)	49명(28%)	2명(1%)
성별	여성	137명(53%)	38명(28%)	67명(49%)	30명(22%)	2명(1%)
	남성	120명(47%)	32명(27%)	61명(51%)	26명(22%)	1명(1%)
종교	기독교	64명(25%)	17명(27%)	39명(61%)	8명(13%)	0명(0%)
	불교	24명(9%)	8명(33%)	8명(33%)	8명(33%)	0명(0%)
	무교	170명(66%)	45명(27%)	81명(48%)	41명(24%)	3명(2%)

다음은 기후위기를 주제로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

는 기후위기라는 주제가 청소년들의 삶에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써, 여성 청소년 80%, 남성 청소년 78%가 “자주 이야기한다”나 “가끔 이야기한다”로 대답하였다(표 4).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항목에는 남성이 22%, 여성 20%로 답하였다. 80%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를 대화의 주제로 나누고 있으며, 그중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기후위기에 대해 친구나 가족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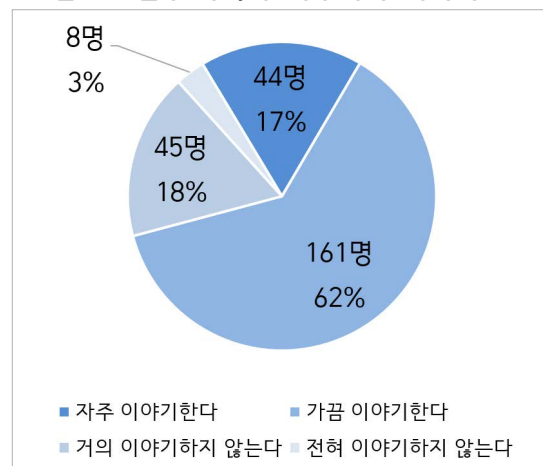
**<표 4> 친구·가족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이야기하는가**

		전체	자주 한다	가끔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b>전체</b>		258명(100%)	44명(17%)	161명(62%)	45명(17%)	8명(3%)
<b>연령</b>	중등	81명(31%)	14명(17%)	47명(58%)	17명(21%)	3명(4%)
	고등	177명(69%)	46명(26%)	80명(45%)	49명(28%)	2명(1%)
<b>성별</b>	여성	137명(53%)	23명(17%)	87명(64%)	22명(16%)	5명(4%)
	남성	120명(47%)	21명(18%)	73명(61%)	23명(19%)	3명(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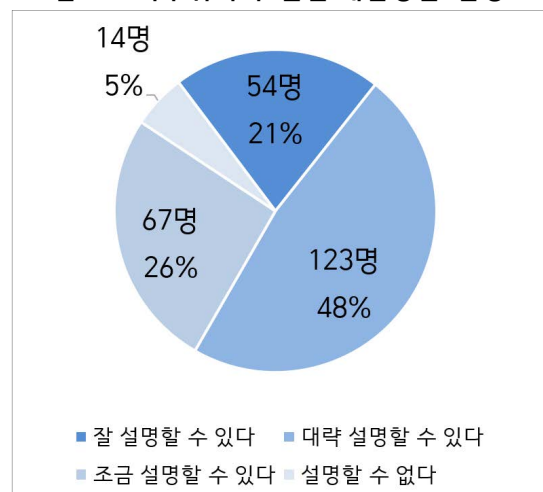
주목할 것은 기후위기에 대해 99%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그림 1), 친구나 가족과 이 주제를 가지고 거의 이야기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이 21%에 달한다는 사실이다(그림 2). 청소년 5명 중 1명은 본인이 인식한 기후위기를 타인과 이야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알고 지낸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친구나 지인과 나눔으로써 그 관심이 심화하고 그 문제에 대한 주제적 인식과 주도적 실천이 시작된다고 할 때, 청소년 스스로 자신과 타인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1%가 “잘 설명할 수 있다.” 48%가 “대략 설명할 수 있다.” 26%가 “조금 설명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3). 특이한 점은 응답자의 5%가 “설명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위의 다른 두 질문에 대한

**<그림 2> 친구·가족과 기후위기 이야기**



**<그림 3> 기후위기의 원인·해결방안 설명**



가장 적은 수의 응답이었던, 기후위기에 대해 “잘 모른다”(1%)는 대답과 이 주제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3%)는 대답의 비율보다 높은 편이었다(표 5). 특히 남성 청소년의 경우 8%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여성 청소년(4%)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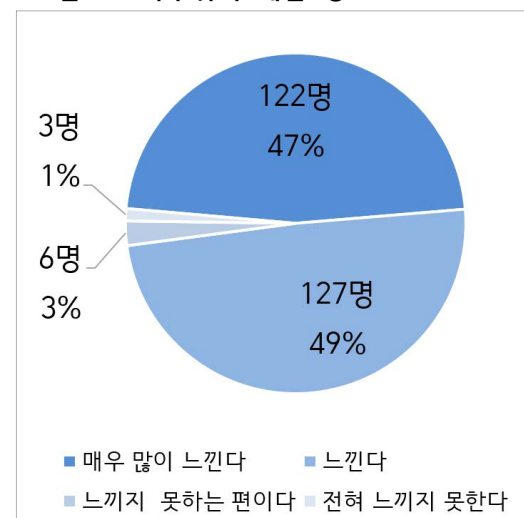
<표 5> 기후위기 인식 관련 응답 비교

기후위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체	70명(27%)	128명(50%)	57명(22%)	3명(1%)
친구/가족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이야기				
	자주	가끔	거의 하지않음	전혀 하지않음
전체	44명(17%)	161명(62%)	45명(17%)	8명(3%)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 설명				
	잘 할 수 있다	대략 할 수 있다	조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전체	54명(21%)	123명(48%)	67명(26%)	14명(5%)
여성	29명(21%)	66명(48%)	37명(27%)	5명(4%)
남성	25명(21%)	57명(48%)	29명(24%)	9명(8%)

이 질문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직관적 인식을 넘어 구체적인 지식을 가졌는지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얼마나 가져왔는지 추론할 수 있다. 기후 위기에 관해 설명할 수 없다는 비율이 기후위기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보다 낮다는 점은 청소년이 받는 기후위기 교육의 수준을 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학습의 원천이 어디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체감하는가 물었을 때 응답자의 96%가 “매우 많이 느낀다”와 “느낀다”는 항목에 대답하였다(그림 4). 이는 기후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정도와 비슷 결과이다. 주목할 점은 여성 청소년의 경우 55%가 “매우 많이 느낀다”고 대답했지만 남성 청소년은 39%의 비율로 대답했다는 것이다(표 6). 또한 “느끼지 못하는 편”과 “전혀 느끼지 못한다”에 남성은 5%가 응답하였고 여성은 3%가 응답하였다. 이는 기후위기 대한 여성 청소년의 체감 정도가 남성 청소년보다 전반적으로 강하며, 기후위기 체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림 4> 기후위기 체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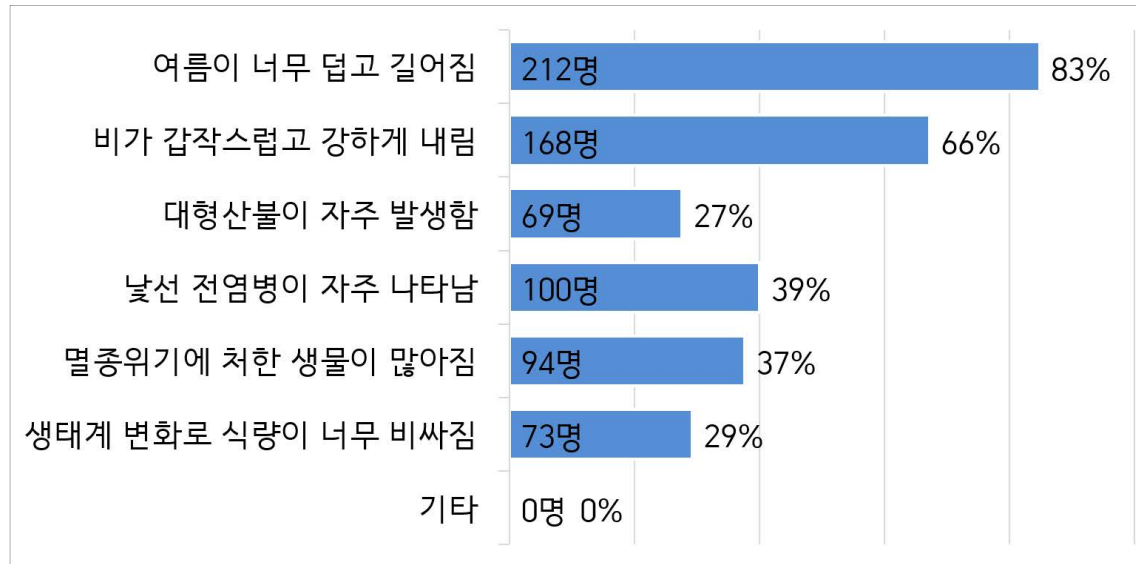


<표 6>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정도

	매우 많이 느낀다	느낀다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느끼지 못한다
전체	122명(47%)	127명(49%)	6명(2%)	3명(1%)
여성	75명(55%)	59명(43%)	1명(1%)	2명(2%)
남성	47명(39%)	67명(56%)	5명(4%)	1명(1%)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경우를 묻는 복수 응답형 질문에는 전체 6개의 예시가 제시되었다(그림 5). 그 가운데 성별, 나이, 종교를 불문하고 가장 많은 청소년이 선택한 항목은 “여름이 너무 덥고 길어짐”(83%)이었다. 특히 전체 여성의 91%와 중학생의 93%가 이 항목을 선택했고, 중학생 중에서도 남성 91%, 여성 94%가 이를 선택하였다(표 7).

<그림 5>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경우(복수 응답)



<표 7> 기후위기 체감 경우 - 여름이 너무 덥고 길어졌다

연령	중등	고등	연령+성별	중등 여성	중등 남성
	75명(93%)	137명(79%)		45명(94%)	30명(91%)
성별	여성	남성	고등 여성	고등 여성	
	123명(91%)	88명(74%)	78명(90%)	58명(67%)	

전체 남성 청소년의 경우 74%가 “여름이 너무 덥고 길어짐”을 선택하였고, 그다음으로 “비가 갑작스럽고 강하게 내림”(59%), “낮선 전염병이 자주 나타난다”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이 많아졌다”를 동일하게 44% 비율로 선택하였다(표 8). 반면 전체 여성 청소년의 경우 ‘전염병’과 ‘멸종위기 생물’에 관한 항목을 35%와 31% 비율로 선택하였다. 이렇게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이유가 청소년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변화에 대한 직관적인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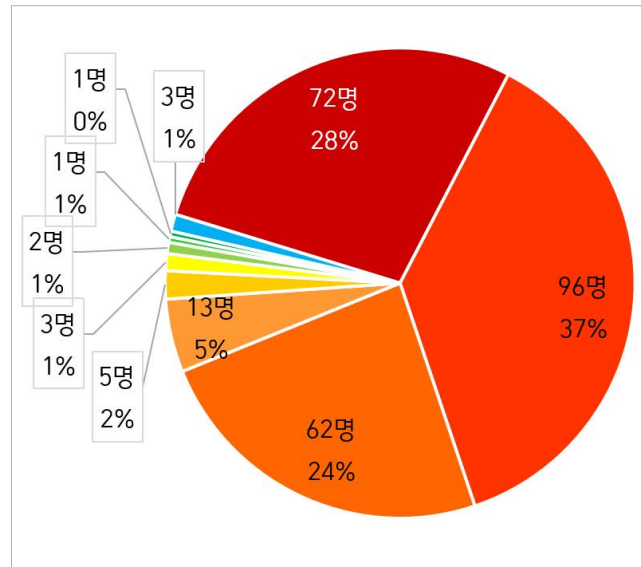
험이 청소년의 기후위기 체감의 주된 근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개인적이고 직관적인 경험을 넘어,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여러 변화와 위기에 대한 다각적이며 심화된 교육과 이해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대목이다.

<표 8> 기후위기 체감 경우(복수응답)

	여름이 너무 덥고 길어짐	비가 갑작스럽고 강하게 내림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함	낮선 전염병이 자주 나타남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이 많아짐	생태계 변화로 식량이 너무 비싸짐
전체	212명(83%)	168명(66%)	69명(27%)	100명(39%)	94명(37%)	73명(29%)
여성	123명(91%)	97명(72%)	35명(26%)	47명(35%)	42명(31%)	34명(25%)
남성	88명(74%)	70명(59%)	34명(29%)	52명(44%)	52명(44%)	39명(33%)
중등	75명(93%)	53명(65%)	16명(20%)	23명(28%)	36명(44%)	23명(28%)
고등	137명(79%)	115명(66%)	53명(31%)	77명(44%)	58명(33%)	50명(29%)

청소년이 기후위기를 얼마나 체감하는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청소년에게 자신이 사는 지역의 온도를 색깔로 표현해 보라고 했다. 색깔은 빨강에서 파랑까지 총 10단계로 나뉘어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색은 2단계인 진한 주황색으로 전체 37%의 학생이 이를 선택했다(그림 6). 여기에 1단계인 빨간색을 선택한 청소년 28%, 3단계인 주황색을 선택한 청소년 24%, 4단계인 옅은 주황색을 선택한 청소년 5%를 합하면, 전체 94%의 청소년이 높은 온도를 알리는 주황색 계열의 색을 선택하였다.

<그림 6> 체감하고 있는 지역의 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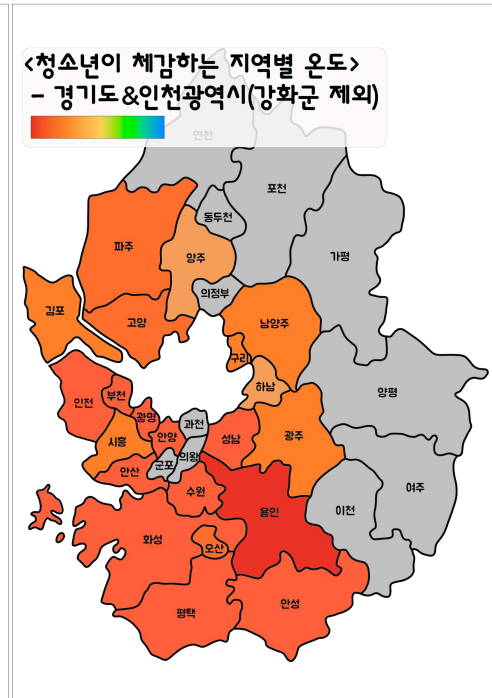


청소년의 응답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지도로 표현하였다(그림 7, 그림 8). 단순히 응답자의 직관을 따라 얻는 이 결론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서울은 강북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수도권에서는 서울이남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온도를 더 높게 표시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7> 지역별 체감 온도 - 서울



<그림 8> 지역별 체감 온도 - 경인권



## 2) 기후위기 정서

다음은 기후위기가 청소년들의 정서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질문은 전체 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기후위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나 상태를 3가지 정도로 적어달라는 단답형 주관식 질문을 제시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도록 하며 이어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그들의 정서적 반응의 근거를 찾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장마’, ‘홍수’, ‘침수’, ‘태풍’, ‘비’, ‘스콜’, ‘우기’ 등 여름철 집중호우와 관련된 답변(77회)을 가장 많이 하였고, 이어 ‘무더위’, ‘불볕더위’, ‘더워요’, ‘끓는다’, ‘땀’과 같은 여름철 폭염과 관련된 답변(74회)을 제출하였다(표 9). 이는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현상과 결과에 주목한 답변으로, 청소년들이 일상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주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기후위기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연상하는 단어를 51회 언급했으며, 그 외 생물 멸종이나 물 부족, 가뭄, 산불, 재난과 관련된 단어를 각각 약 20~30회 언급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사회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재난이나 어려움에 대해 청소년들의 관심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주목할 것은 ‘큰일났다’(15회), ‘위험’(15회), ‘멸망’(8회), ‘위기’(6회), ‘심각함’(6), ‘화가 남’(4회), ‘재앙’(2회), ‘조급함’(2회), ‘아픔’(2회), ‘암울’(2회)와 같은 감정적 상태를 드러내는 답변을 청소년들이 이미 상당수 제출하였다는 점이다(표 10).

<표 9> 기후위기 연상 단어(주관식 응답) - 응답순위 1위~2위

순위	대표단어	유사단어	응답 수
1	폭우	장마/홍수/침수/태풍/폭풍/폭풍우/해일/비/스콜/우기	77
2	더위	무더위/불볕더위/너무 더운 날씨/더움/덥다/더워요/폭염/여름/끓는다/땀	74
3	온난화	지구온난화	51
4	멸종	멸종위기종/멸종위기동물/동물멸종/멸종동식물/생물멸종	39
5	가뭄	물부족	30
6	기후변화	온도변화/이상기후/이상기온/기상이변	25
7	생태계	생태/생태계파괴/생태계분열/동물/동식물/동식물의변화	23
8	산불	불/화재	22
9	사고	재난/기후재난/자연재해	21
10	빙하	남극빙하/얼음/빙하녹음/빙하소멸/빙하용해/빙하감소/녹는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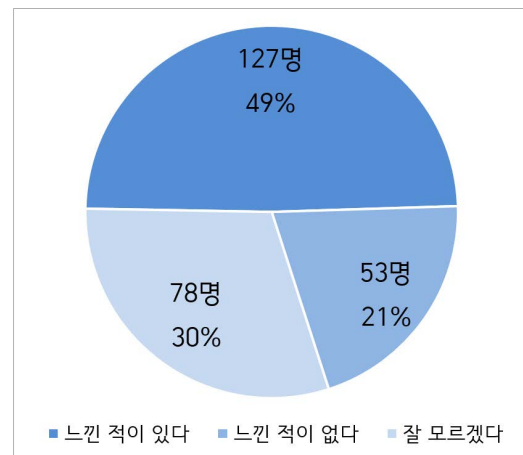
<표 10> 기후위기 연상 단어(주관식 응답) - 주요 유형별 응답순위

순위	유형	단어	응답 수
1	자연재해	사고, 재난, 기후재난, 폭우, 장마, 홍수, 침수, 태풍, 폭풍, 폭풍우, 해일, 비, 스콜, 우기, 가뭄, 물 부족, 사막화, 산불, 불, 화재, 엘니뇨, 지진, 산사태, 토네이도, 폭설, 강설	173
2	날씨 문제	극한 날씨, 극단적 날씨, 기후변화, 온도변화, 이상기후, 이상기온, 기상이변, 더위, 무더위, 불볕더위, 너무 더운 날씨, 더움, 덥다, 더워요, 폭염, 여름, 끓는다, 땀, 열대야, 열대, 태양, 햇빛, 추위, 강추위, 한파, 겨울추위, 춥다, 냉각, 사계절, 사계절이 없어짐, 사라지는 봄가을	133
3	멸종위기	멸종, 멸종위기종, 멸종위기동물, 동물멸종, 멸종동식물, 생물멸종,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감소, 생태계, 생태, 생태계파괴, 생태계분열, 동물, 동식물, 동식물의 변화, 해양생태계, 해양생물손실, 해양생물위기, 물고기, 산호, 북극곰, 꿀벌, 벌레	85
4	지구온난화	온난화, 열대화 현상, 열대화 시대, 지구 열대화, 온도, 기온, 온도상승, 온도증가, 너무 높은 온도, 고열, 고온, 기후협약, 파리조약, 파리기후협약	76
5	해양문제	바다, 해양 산성화, 산성화, 해수면, 해수면상승, 바다수온상승, 수온, 남극, 북극, 극지방, 빙하, 남극빙하, 얼음, 빙하녹음, 빙하소멸, 빙하용해, 빙하감소, 녹는다	50
6	부정적 감정	조급함, 긴박함, 불안, 큰일났다, 걱정, 슬픔, 암울, 비극적인,	40

		무기력함, 화가 남, 분노, 짜증난다, 막막함, 답답함, 공포, 아픔, 고통, 심각함, 경고, 나빠짐, 찝찝하다, 검정색, 적색	
7	위기	위험, 오염, 환경오염, 파괴, 환경파괴, 지구의 아픔	40
8	대기 문제	오존층, 오존층파괴, 온실, 온실효과, 온실가스, 가스, 프레온가스, 이산화탄소, 탄소, 탄소배출, 탄소배출량, 대기오염, 공기오염, 미세먼지	37

위의 질문과 연결하여, 기후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 중 49%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21%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 30%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그림 9).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 중 약 절반에 가까운 수가 기후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기후위기가 청소년 개인의 정서적 차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기후위기로 부정적인 감정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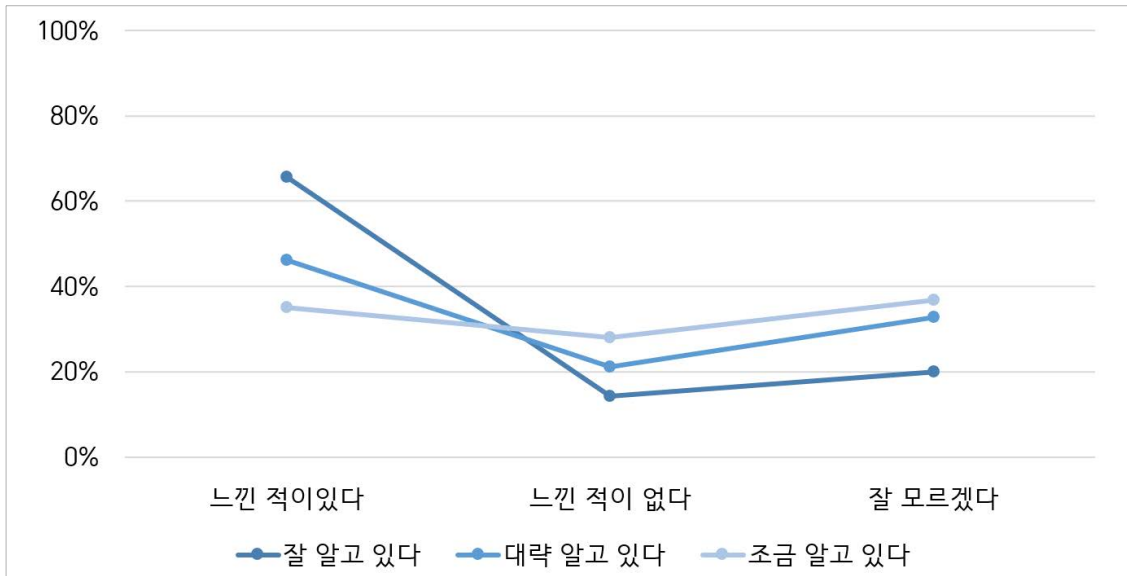
이것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연결하여 분석하였을 때(표 11), 기후위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66%,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은 20%,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은 14%였다. 기후위기에 대하여 대략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46%,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은 33%,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은 21%였다. 기후위기에 대하여 조금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35%,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은 37%,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은 28%였다.

<표 11> 기후위기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경우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127명(49%)	53명(21%)	78명(30%)
기후위기 인식	잘 알고 있다	46명(66%)	10명(14%)	14명(20%)
	대략 알고 있다	59명(46%)	27명(21%)	42명(33%)
	조금 알고 있다	20명(35%)	16명(28%)	21명(37%)
성별	여성	72명(53%)	24명(18%)	41명(30%)
	남성	55명(46%)	28명(23%)	37명(31%)

기후위기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수가 3명으로 매우 적어 이를 제외한 다른 응답자의 기후위기 인식 수준과 기후 감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후위기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가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고, 낮을수록 더 많은 수가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즉,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경험이 많은 경향이 있다(그림 10).

<그림 10> 기후위기 인식에 따른 부정적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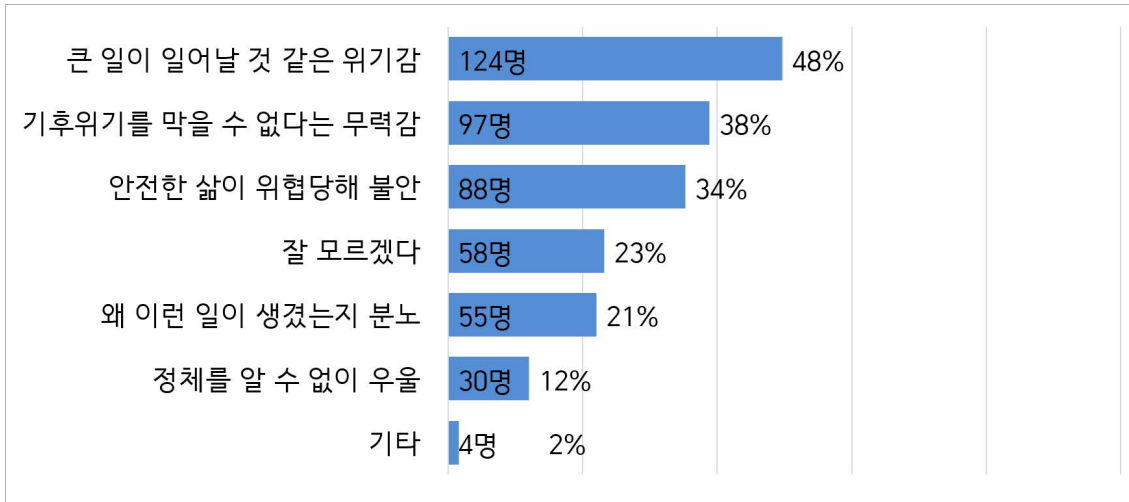


다음으로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기후 감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표 11), 기후위기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여성 응답자 중 53%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18%,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하여 남성 응답자 중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6%, 없다고 답한 사람은 23%,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31%였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7% 많아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다소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7개의 예시로 이루어진 복수 응답형 질문에는 “세상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이 48%로 가장 많았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 38%, “안전한 삶이 위협당해 불안” 34%,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분노” 23%, “정체를 알 수 없이 우울”이 12%로 그 뒤를 이었다(그림 11). 기타 주관식 답변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화가 난다,” “밖이 너무 더워서 화가 난다,” “(영화)승리호처럼 지구를 버려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등이 있었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인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하여 예시로 제시된 5가지의 선택지 위기감, 무력감, 불안감, 분노, 우울 내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복수 답변을

하였고, 기타 감정에 대한 응답은 비교적 적었다.

<그림 11> 기후위기로 느낀 부정적 감정(복수 응답)



### 3) 종합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정서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매우 높은 비율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인식은 주로 직관적,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또한 인식과 지식에 있어서는 성별이나 연령,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감정적 차원과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드러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인식과 정서를 또래 집단과 공유하고, 그 공유를 통해 문제 해결과 부정적 전망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서로의 인식과 정서를 공유하는 것은 기후위기 앞에서 청소년의 주체성을 고양하고 주도적 참여와 실천을 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 스스로 기후위기에 직면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확대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결과였다.

## 2.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와 주체성

### 1) 개인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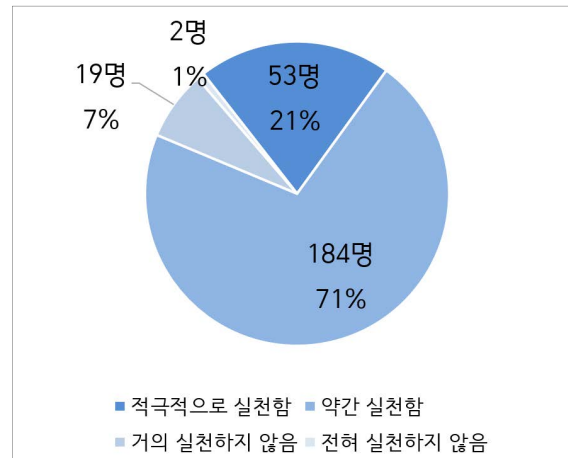
다음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개인의 실천 정도를 묻는 문항 3가지이다.

먼저 평소 생활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 중 21%가 “적극적으로 실천한다”고 답변했고, 71%가 “약간 실천한다,” 7%가 “거의 실천하지 않는다,” 1%가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그림 12).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개인적으로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청소년이 92%에 달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크든 작든 주도적으로 실천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인식 수준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개인의 실천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표 12, 그림 13), 기후위기여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함”은 37%, “약간 실천함”은 57%, “거의 실천하지 않음”은 4%, “전혀 실천하지 않음”은 1%였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이 37%로 전체 평균인 21%를 훨씬 웃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하여 대략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실천함”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13%, “약간 실천함” 77%, “거의 실천하지 않음” 9%, “전혀 실천하지 않음” 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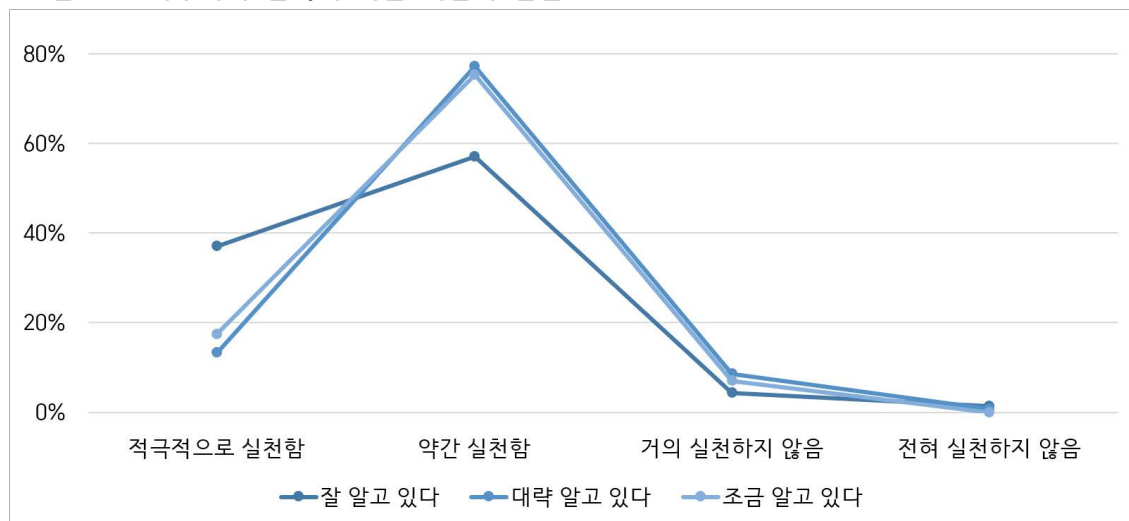
<그림 12>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개인의 실천



<표 12>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개인의 실천

		적극적 실천	약간 실천	거의 실천하지 않음	전혀 실천하지 않음
<b>전체</b>		53명(21%)	184명(71%)	19명(7%)	2명(1%)
<b>기후위기 인식</b>	잘 알고 있다	26명(37%)	40명(57%)	3명(4%)	1명(1%)
	대략 알고 있다	17명(13%)	99명(77%)	11명(9%)	1명(1%)
	조금 알고 있다	10명(18%)	43명(75%)	4명(7%)	0명(0%)
	잘 모른다	0명(0%)	2명(67%)	1명(33%)	0명(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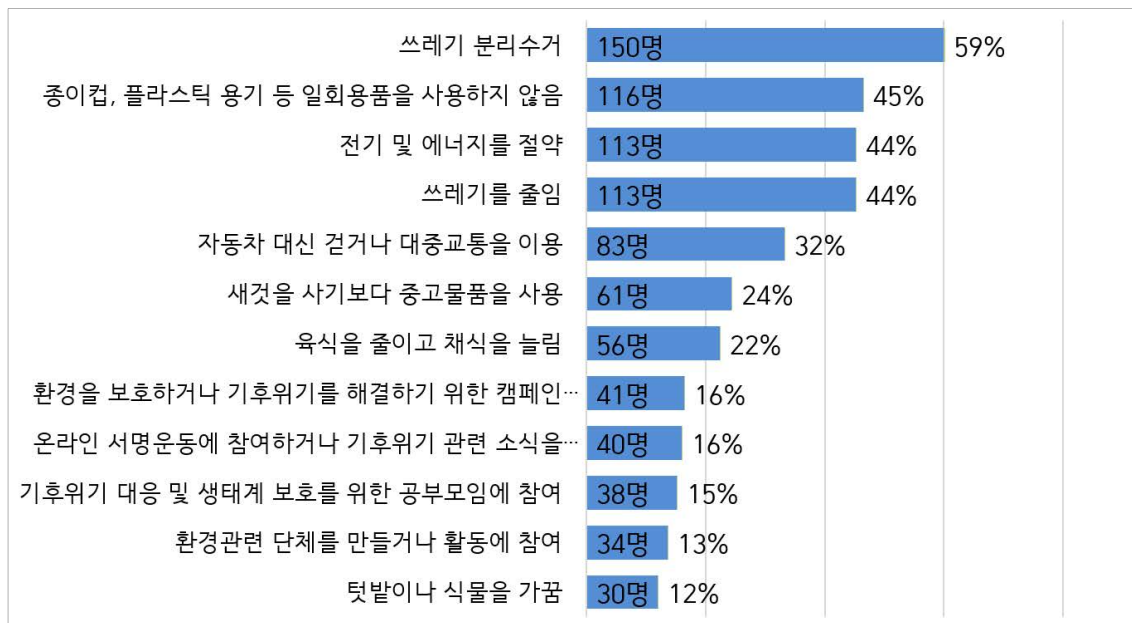
<그림 13> 기후위기 인식에 따른 개인의 실천



기후위기에 대하여 조금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적극적으로 실천함”은 18%, “약간 실천함 75%, “거의 실천하지 않음” 7%였다. 기후위기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지만 비슷한 추세로 약간 실천함과 거의 실천하지 않음을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위기 인식 수준과 개인의 실천에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고 있을까? 13개의 예문으로 제시된 복수 응답형 질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그림 14). 다음으로는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음”이 45%, “쓰레기를 줄임”과 “전기 및 에너지를 절약”이 각각 44%, “자동차 대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이 32%, “새것을 사기보다는 중고 물품을 사용”이 24%,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림”이 22%, “환경을 보호하거나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침”이 16%,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하거나 기후 위기 관련 소식을 SNS로 공유”가 16%,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공부 모임에 참여”가 15%, “환경관련 단체를 만들거나 활동에 참여”가 13%, “텃밭이나 식물을 가꿈”이 12%로 뒤를 이었다.

<그림 14>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개인의 실천 사항(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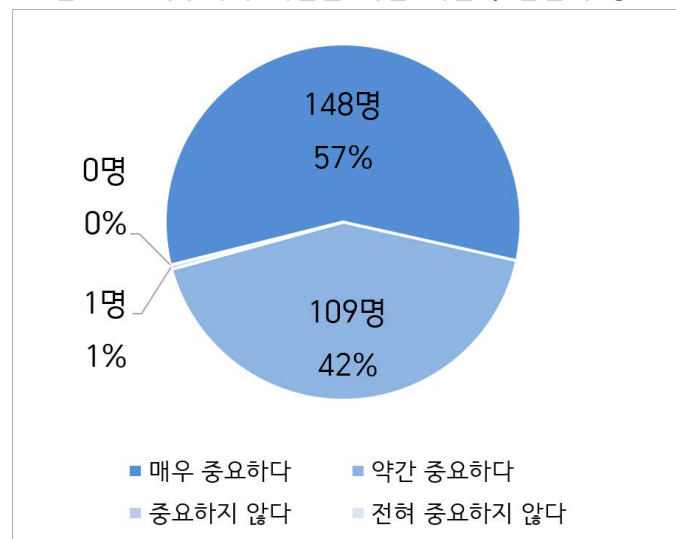
청소년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개인적 실천 참여는 매우 다양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절제, 쓰레기 줄이기가 실천 방법 중 1~3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은 주로 자신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이 청소년들이 가장 쉽고, 익숙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 뒤를 이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개인적 실천 방안으로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중고 물품 구입 등이 있다. 많은 응답자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지목되는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에너지 영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참여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응답자 중 약 15%가량이 일상에서의 개별적 실천을 넘어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고(16%), 관련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하거나 SNS로 소식을 공유하고(16%),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공부모임에 참여하고(15%), 환경관련 단체를 만들거나 활동에 참여(13%)한다고 답변한 점이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게 오로지 대학 입시와 이를 위한 공부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며 청소년이 기후위기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약 15%의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별적 실천을 넘어 연대 활동과 집단적 실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나머지 85%가량의 청소년들이 일상에서의 개인적 실천을 넘어서 개인의 연대와 단체 활동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위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 문제의 당사자이자 핵심 주체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사회, 학교, 정부 등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이러한 개인적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57%는 “매우 중요하다,” 42%는 “약간 중요하다,” 1%는 “중요하지 않다”로 답변하였다(그림 15). 특히 여성 청소년들은 70% 이상이 개인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이는 남성 청소년(43%)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차이이다(표 13). 종합적으로 볼 때, 개인적 실천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견이 99%에 달한다는 점은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대부분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적인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61%에 달하는 청소년이 개인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느끼는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실천의 필요성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개인적 실천의 중요도



<표 13>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개인적 실천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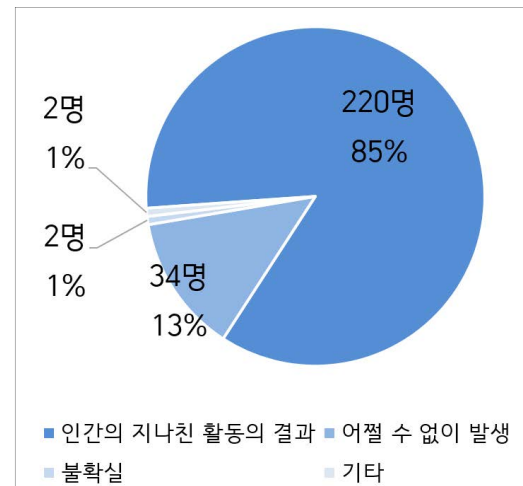
		매우 중요	약간 중요
전체		148명(57%)	109명(42%)
성별	여성	96명(70%)	40명(29%)
	남성	52명(43%)	68명(57%)
기후위기로 부정적 감정 느낀 적	있다	78명(61%)	49명(39%)
	없다	25명(47%)	28명(53%)
	잘 모름	45명(58%)	32명(41%)

## 2) 사회와 정책

다음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문제가 갖는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총 5개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먼저 기후위기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후위기는 인간의 지나친 활동(과도한 산업화 등)의 결과”라는 답변이 85%, “기후위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는 답변이 13%, “불확실”하다는 답변과 기타 답변이 각각 1%로 기록되었다(그림 16). 이를 통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기후위기가 인간의 지나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후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과 남성 청소년 간의 차이이다. 여성 청소년의 93%가 기후위기를 인간의 지나친 활동의 결과라고 인식한 것에 비해, 남성 청소년의 76%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인간의 지나친 활동의 결과로, 22%는 기후위기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표 14).

<그림 16> 기후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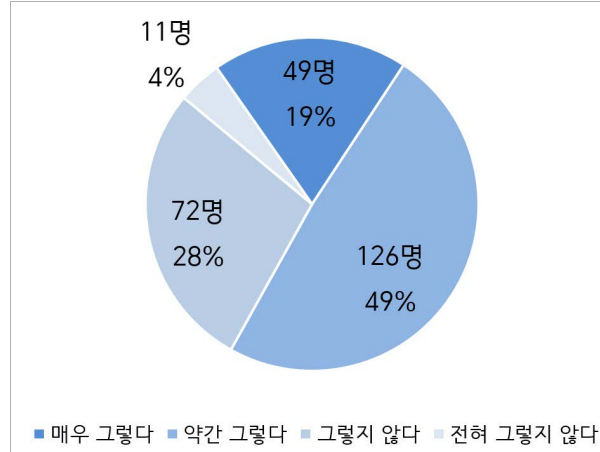
<표 14> 기후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식

	인간의 지나친 활동의 결과	어쩔 수 없이 발생	불확실	기타
전체	220명(85%)	34명(13%)	2명(1%)	2명(1%)
여성	128명(93%)	8명(6%)	1명(1%)	0명(0%)
남성	91명(76%)	26명(22%)	1명(1%)	2명(2%)

나아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19%, “약간 그렇다” 49%, “그렇지 않다” 28%, “전혀 그렇지 않

다” 4%의 청소년이 응답하였다(그림 17). 이 질문을 성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남성 청소년의 78%, 여성 청소년의 59%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매우” 또는 “약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15). 전체 응답자의 약 3분의 1(32%)이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중요성, 문제 해결의 긴급성에 비해 사회는 진지하지 못하다, 즉,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7> 사회가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다루는가



<표 15> 사회가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다루는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체	49명(19%)	126명(49%)	72명(28%)	11명(4%)
여성	24명(18%)	57명(42%)	50명(37%)	6명(4%)
남성	25명(21%)	68명(57%)	22명(18%)	5명(4%)

다음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어떤 사회 집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선순위로 3곳을 꼽으라는 질문에 대해 청소년들은 1위로 정부(누적 점수<sup>25)</sup> 295점)를, 2위로 기업(261점)을, 3위로 개인(257점)을, 4위로 국회(214점)를, 공동 5위로 교육기관과 언론(169점)을, 6위로 공무원(100점)을, 7위로 시민단체(83점)를 선정하였다(표 16).

<표 16>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집단별 중요성

순위	답변	누적점수
1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	295
2	공장과 무역으로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의 탄소경영	261
3	모든 개인과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실천	257
4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 역할	214
5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 언론의 역할	169
6	기후위기 문제와 원인을 알려주고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의 역할	169
7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지역 공무원의 역할	100
8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올바른 감시와 견제	83

25) 응답자가 선택한 우선순위에 따라 답변마다 각각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하며, 총점수를 더하여 항목별 최종 점수를 계산한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과제의 우선순위로 두 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실행”이 1위(누적 점수<sup>26)</sup> 246점)를,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법으로 강력히 규제”가 2위(242점)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 또는 정책으로 지원”이 3위(154점)를,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복지)를 강화”가 4위(132점)를 차지했다(표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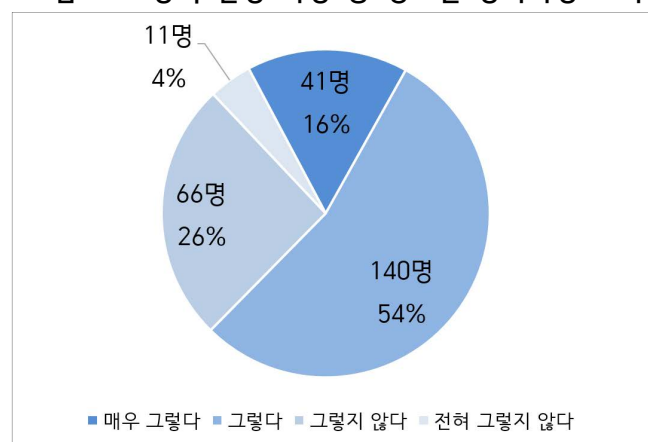
<표 17>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과제의 우선순위

순위	답변	누적점수
1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실행	246
2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법으로 강력히 규제	242
3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 또는 정책으로 지원	154
4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복지)를 강화	132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응답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집단을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하여 성취되어야 할 과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 다음으로 중요한 집단은 기업이며,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 수립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환경 파괴 기업의 사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청소년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목표와 정책을 세우고, 개인과 기업의 환경 파괴 행위를 규제하고, 기후위기 해결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정부’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응답자인 청소년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과제 중 정부와 지자체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목표설정과 정책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당사자성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그림 18). 이 질문에

<그림 18> 정책 결정 과정 중 청소년 당사자성 고려



26) 1순위 2점, 2순위 1점

청소년의 당사자성이 매우 고려되었다는 답변이 16%, 고려되었다는 답변 54%, 고려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25.6%, 그리고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4%였다. 80%의 청소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고려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아래에서 더 논의하겠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설문 조사 문항에서 "당사자성을 고려했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단순한 "대상자"로서 청소년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목소리를 가진 "주체"로서 청소년의 당사자성이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확인해야 정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당사자성이 고려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추후 청소년이 생각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당사자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 3) 참여와 주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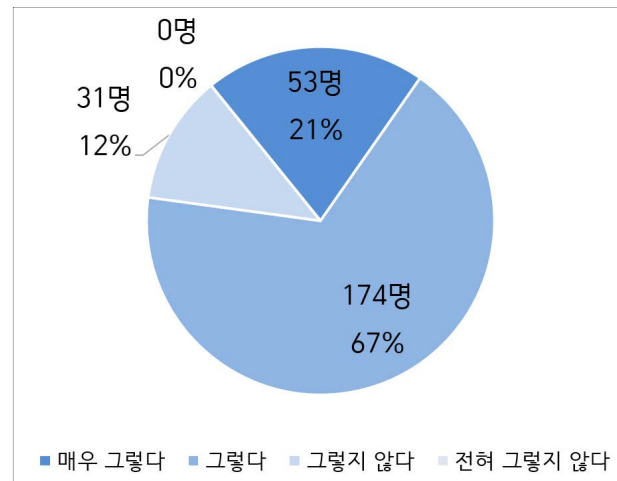
이제 청소년들의 참여와 주체성에 대해 5개의 문항으로 질문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청소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21%가 "매우 그렇다," 67%가 "그렇다," 12%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그림 19). 88%의 응답자가 청소년이 기후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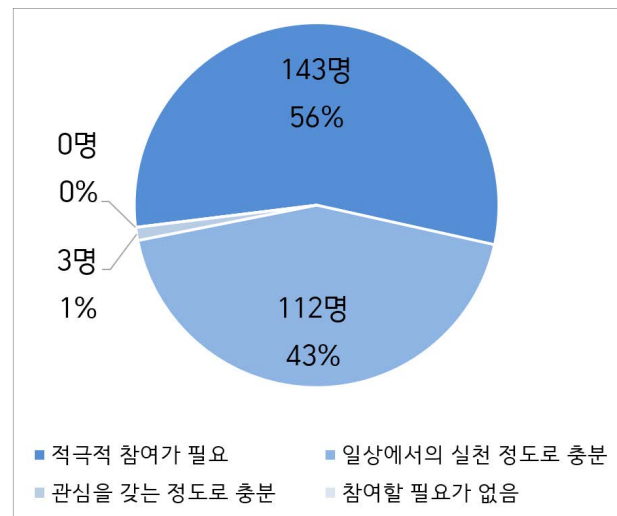
이에 상응하여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 의사'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56%가 "적극 참여 의사"를, 43%가 "일상적 실천 정도의 참여"를 답함으로 대부분의 응답자(99%)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그림 20).

그러나 위의 적극적 참여 의사와 비교해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단체 활동 참여 의사를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27%가 "매우 그렇다"로 답하고, 그 두 배가 넘는 58%가 "그렇다"에 답함으로써, 대부분의 청소년이 적

<그림 19> 기후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 가능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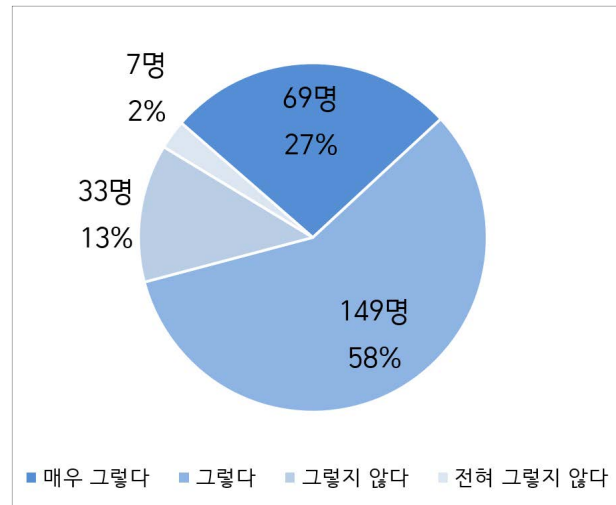
<그림 20> 기후위기 해결에 청소년 참여 필요성



극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단체 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가졌음을 드러냈다(그림 21).

앞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어떤 사회 집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청소년은 정부와 기업에 이어 개인이 3번째로 중요한 주체라고 답변하였고 시민단체의 역할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청소년은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낮고, 개개인의 실천과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21> 기후위기 관련 단체 활동 참여 의사



이 결과는 기후위기 해결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3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고르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연결된다. 청소년들은 “학교나 학원생활로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1순위(누적 점수 410점)로 꼽았다(표 18).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월등한 비율로 이 문항을 선택했다(246점, 남성 청소년: 161점). 이는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참여할 여건이 마땅치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므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순위(298점)를 차지했다. 이는 그간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과 주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목격하며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기대감이 낮아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3순위로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240점)을 뽑았으며 이는 기후위기로 인해 어떤 부정적 감정을 느꼈냐고 물었을 때 두 번째로 많은 응답으로 무력감을 선택한 것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표 18> 청소년이 기후위기 해결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의 우선순위

순위	답변	누적점수
1	학교나 학원 생활로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	410
2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므로 의미 없음	298
3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	240
4	예민하고 괜히 나서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아 눈치가 보임	225
5	활동에 대한 정보, 교육이 부족	207
6	활동을 만들고 지원하는 단체나 프로그램이 부족	163

나아가 청소년의 주체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를 위해 지원되어야 할 사항의 전체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질문에 절대다수의 청소년이 교육과 활동을 위한 “시간”(누적 점수 971점)과 “현장과 기회”(950점), “정책결정에 의견을 내고 의견이 반영될 기회”(939점)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표 19). 이것은 청소년 주도의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앞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정책 구조에서의 수용 능력을 확장할 것을 청소년들이 더 시급히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19>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

순위	답변	누적점수
1	기후위기 관련 교육과 활동을 위한 시간	971
2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현장과 기회	950
3	중요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내고, 의견이 반영될 기회	939
4	청소년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	752

#### 4) 종합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참여 의지를 보였지만, 조직적이고 정책적인 참여에는 어려움을 표했다. 이는 그들의 의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반영한다. 앞선 질문들에서 청소년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당사자성이 “매우 고려되었다”와 “고려되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80%),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청소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절대적인 비율(88%)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누적 점수 298점)는 문항에도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당사자성이 고려되었냐는 질문과 관련하여 제기된 청소년이 생각하는 ‘당사자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즉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단순히 기후위기의 피해 당사자로서 그리고 정책 시행의 대상으로서 이해하고 대답했던 것은 아닌지 추론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높은 참여 의지를 가졌지만 단체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개인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되어야 한다. 단체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상대적 소극성’의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주체적인 활동의 여건을 만들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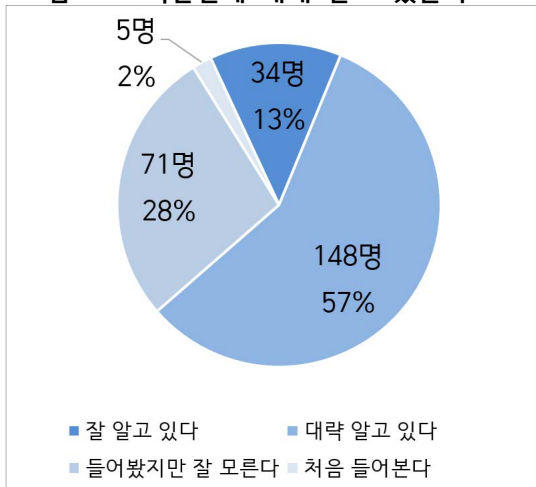
### 3. 탈핵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 1) 핵발전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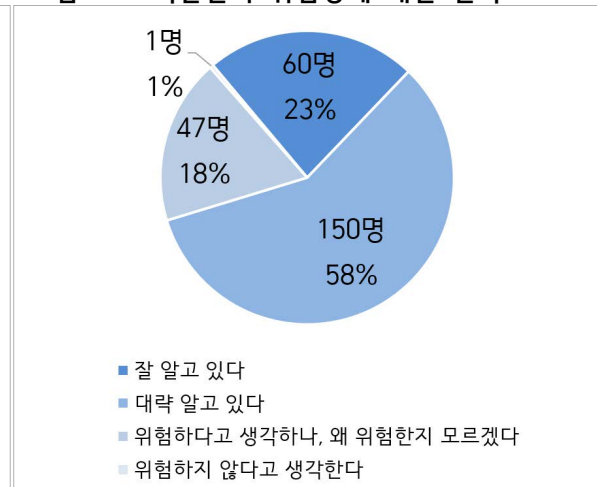
다음은 청소년들의 탈핵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들으로써, 전체 6개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먼저 핵발전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식을 물었을 때 “잘 알고 있다”와 “대략 알고 있다”가 각각 13%와 57%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이 28%에 달했다(그림 22). 이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지식(77%)과 비교하여 약간 저조하지만, 비슷한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지식을 물었을 때에도 58%의 청소년이 “대략 알고 있다”, 23%가 “잘 알고 있다”로 답하였으며, 18%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나 왜 위험한지 모르겠다”로 답하였다(그림 23).

<그림 22> 핵발전에 대해 알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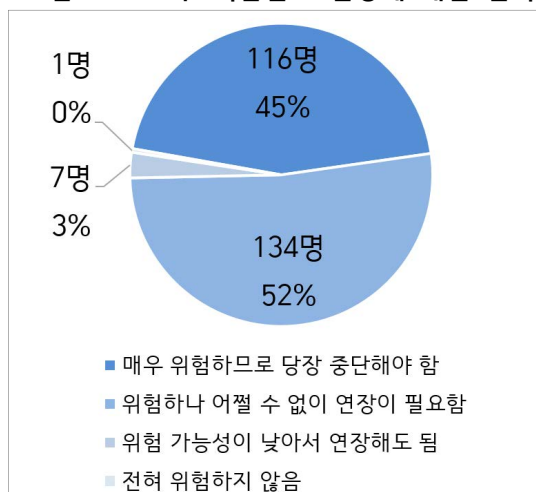


<그림 23>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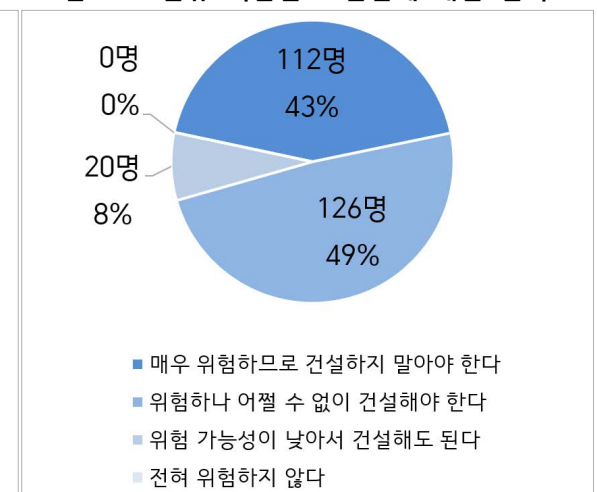


주목할 것은 이와 비교해서 노후 핵발전소 연장의 위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45%의 청소년이 “매우 위험하므로 당장 중단해야한다”로 답하였지만, 가장 높은 비율인 52%의 청소년들이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연장이 필요하다”로 답변하였다는 점이다(그림 24).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인식 역시 “위험하나 어쩔 수 없이 건설해야 한다”가 49%로 가장 높았고, “매우 위험하므로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가 43%로 그 뒤를 이었다(그림 25).

<그림 24> 노후 핵발전소 연장에 대한 인식



<그림 25>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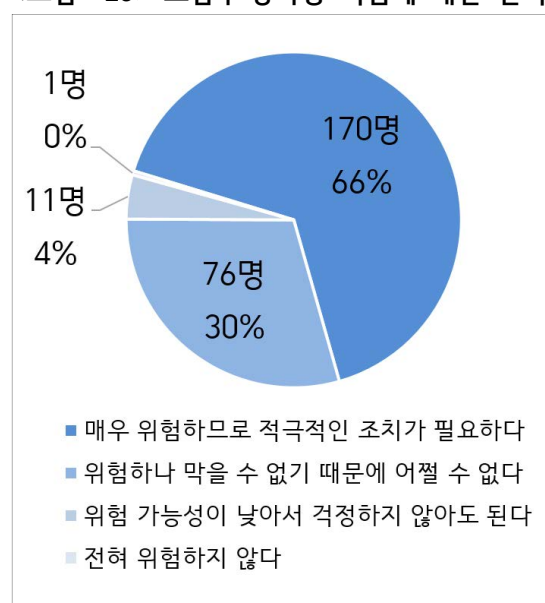
이런 결과는 응답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드러냈었던 정서적 불안감과 실천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과는 눈에 띄게 대비된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개인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답했던 응답자 중 55%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관해서는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건설해야 한다”에, 7%가 “위험가능성이 낮아서 건설해도 된다”에 응답하였다(표 20). 이는 핵발전에 대한 지식과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조함을 나타낸다. 기후위기와 비교하여 핵발전소의 위험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가 직면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이 차이에 대해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이 핵발전의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20> 기후위기 인식과 실천 필요성에 따른 핵발전에 대한 인식

노후 핵발전소 연장				
	매우 위험하므로 당장 중단해야 함	위험하나 어쩔 수 없이 연장 필요	위험 가능성이 낮아서 연장해도 됨	전혀 위험하지 않음
기후위기 잘 알고 있다	38명(55%)	31명(44%)	1명(1%)	0명(0%)
개인의 실천 중요하다	50명(41%)	68명(56%)	3명(3%)	0명(0%)
신규 핵발전소 건설				
	매우 위험하므로 당장 중단해야 함	위험하나 어쩔 수 없이 연장 필요	위험 가능성이 낮아서 연장해도 됨	전혀 위험하지 않음
기후위기 잘 알고 있다	37명(53%)	30명(43%)	3명(4%)	0명(0%)
개인의 실천 중요하다	46명(38%)	67명(55%)	8명(7%)	0명(0%)

위의 문항과 비교하여 주목할 것은 방사능 오염수와 방사능 식품의 위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매우 위험하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전체 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점이다(그림 26). “위험하나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은 30%에 불과했다. 그 가운데 여성 청소년들이 75%의 비율로 매우 위험하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이는 남성 청소년과 비교하여(55%)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표 21). 노후 핵발전소의 연장이나 신규 건설에 대한 대답과 비교할 때, 이런 결과는 그간 핵발전

<그림 26> 오염수·방사능 식품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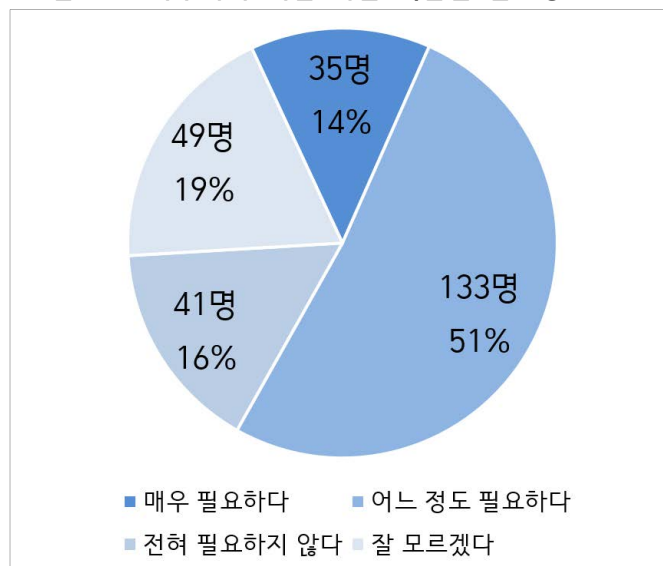
과 그 영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 제기가 주로 방사능 오염수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에 그쳤으며, 핵발전소 자체가 갖는 위험은 덜 주목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1> 오염수 및 방사능 식품의 위험성

	매우 위험하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위험하나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위험 가능성이 낮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전체	170명(66%)	76명(30%)	11명(4%)	1명(0%)
여성	103명(75%)	32명(23%)	2명(2%)	0명(0%)
남성	66명(55%)	44명(37%)	9명(8%)	1명(1%)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핵발전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65%의 청소년이 “매우 필요하다”(14%)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52%)로 답하였다(그림 27). 이를 다시 성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74%의 남성, 57%의 여성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표 22). 주목할 것은 이 질문에 대해 여성 26%, 남성 11%의 청소년들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27> 기후위기 해결 위한 핵발전 필요성



<표 22>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핵발전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35명(14%)	133명(51%)	41명(16%)	49명(19%)
여성	12명(9%)	66명(48%)	23명(17%)	36명(26%)
남성	23명(19%)	66명(55%)	18명(15%)	13명(11%)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핵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러한 인식 역시 ‘기후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미래 에너지로서의 핵발전’이라는 정부 주도의 홍보와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불안, 높은 실천적 참여 의지와 비교할 때, 실제로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동력으로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청소년 교육은 아직 부족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 2) 종합

종합하면, 탈핵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조사를 통해서 탈핵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국가와 사회의 정책 방향과 홍보, 그에 근거한 교육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즉 기후위기와 비교해서 청소년들에게 탈핵이라는 주제는 아직 낯선 주제이며, 이 주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판단 또한 미디어나 교육의 현장에서 주로 주장되는 방식과 비슷한 결을 지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핵발전이 개인에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방사능오염수, 식품 안전 등)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핵발전소의 연장이나 신설에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핵발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장기적, 파괴적 위험에 대한 정보의 전달과 교육이 청소년에게 여전히 부족함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미래에 지대한 부담을 끼치게 될 핵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교육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 설문 응답자의 83%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로서 비교적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추후 핵발전소 해당 지역이나 인근에 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도하여 수도권 청소년들의 이해와 상호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청소년이 그리는 미래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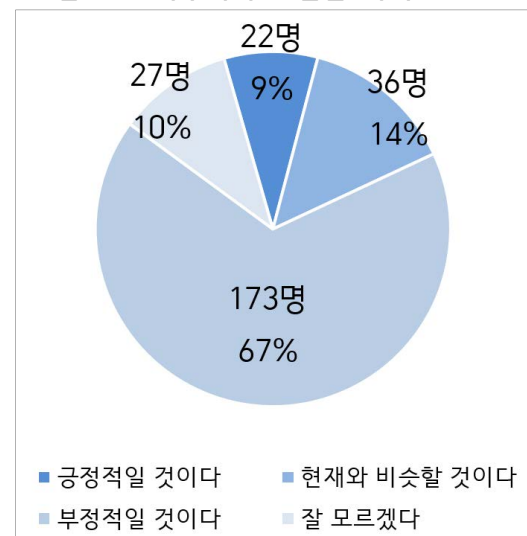
### 1) 미래 전망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아래와 같이 5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상상하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67%가 부정적인 전망을, 14%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가 무려 10%로, 긍정적인 것이라는 전망을 한 응답자 9%보다 앞섰다(그림 28). 눈에 띄는 점은 여성 청소년의 80%가, 남성 청소년의 53%가 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표 23).

미래에 위협이 될 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10개의 선택지를 가진 복수 응답형 질문

<그림 28>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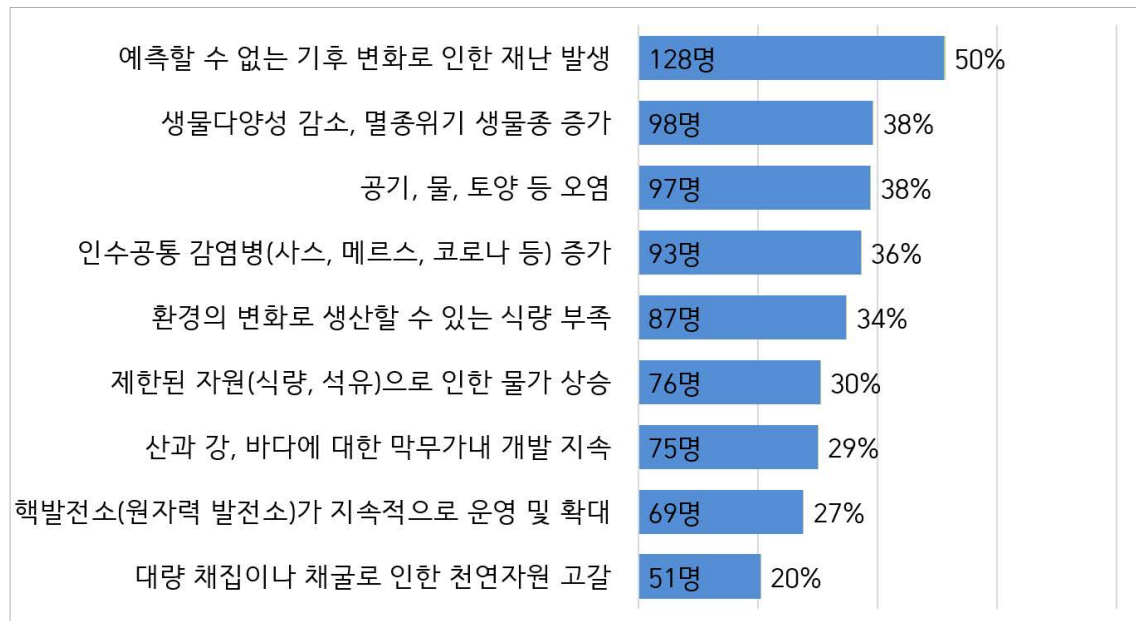


<표 23>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

	긍정적일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부정적일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22명(9%)	36명(14%)	173명(67%)	27명(11%)
여성	9명(7%)	10명(7%)	109명(80%)	9명(7%)
남성	13명(11%)	26명(22%)	63명(53%)	18명(15%)

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위협이 되어 재난이 발생한다는 답변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멸종위기종의 증가”가 38%, “공기, 물, 토양 등의 오염”이 38%로 그 뒤를 이었다(그림 29). 이는 “천연자원의 고갈(20%)”이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물가 상승(30%)”과 같은 경제적 활동 제약에 대한 우려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써, 청소년들이 경제적 유불리를 넘어 다른 생명과 그 터전의 파괴를 미래를 위한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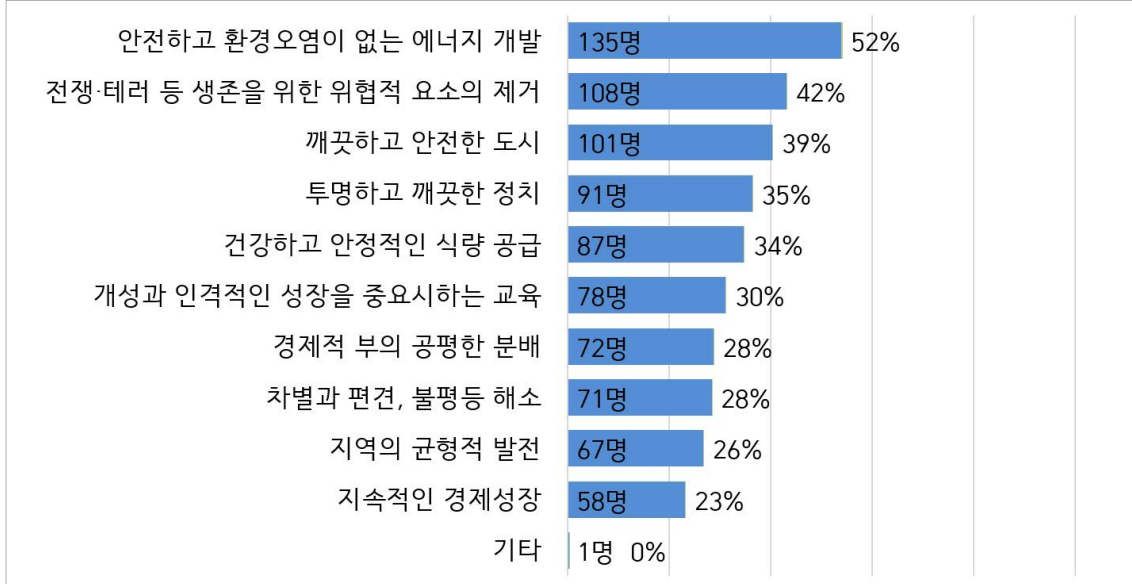
<그림 29> 미래에 위협이 될 생태 및 환경문제(복수 응답)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11개의 선택지를 가진 복수 응답형 질문에서는 “안전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에너지 개발”이 5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그 뒤를 이어 “전쟁 및 테러 등 생존을 위한 위협적 요소의 제거(42%)”,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39%)”가 청소년들의 주된 희망으로 드러났다(그림 30).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35%)”, “건강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34%)”, “개인의 개성과 인격적인 성장을 중요시하는 교육(30%)”, “경제적 부의 공평한 분배(28%)”, “차별과 편견, 불평등의 해소(28%)”, “지역의 균형적 발전(26%)”이 청소년들이 그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11가지의

문항 중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23%로 가장 저조한 지지를 받았고, 청소년들은 오히려 경제적 부의 공평한 분배(28%)가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그림 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복수 응답)



마지막으로, 이 설문에서 주목할 것은 기후위기가 없는 20년 후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이다(표 24). 이 질문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회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상상해 보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부정적인 답변(6건)이나 “기후위기가 없음” 같이 일반적인 답변(5건)과 답변하지 않은 경우(2건)를 제외하고, 전체 응답에서 50여 개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키워드는 ‘깨끗한 공기,’ ‘적당한 기온,’ ‘재해 없는,’ ‘전염병 없는,’ ‘뚜렷한 (사계절)’과 같은 기후환경과 관련된 부정적 요인의 제거였다. ‘고통 없는’과 ‘걱정 없는,’ ‘행복한’ 등 현재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이 반영된 정서적 답변도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동식물의 공존,’ ‘평화로운 생태계,’ ‘식량안정’ 등의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특정한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그리거나, ‘저탄소,’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 등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제시했다. ‘(상호)존중,’ ‘안전,’ ‘경제적 격차 해소,’ ‘전쟁 없는’ 등 기후위기를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의견도 다수 제출되었다.

<표 24> 청소년이 상상하는 미래 사회 키워드

키워드	답변 횟수	키워드	답변 횟수	키워드	답변 횟수
깨끗한 공기	64	적당한 기온	46	재해 없는	41
재해 없는	41	고통 없는	32	걱정 없는	27
재생에너지	25	야외활동	22	공존	21
전염병 없는	19	뚜렷한 사계절	16	생명보호	14
안전한	14	생물다양성	10	자연회복	10

효율적자원사용	9	평등한	8	혁신기술	8
저탄소경제	7	안전한 먹거리	6	행복한	6
깨끗한	5	생태계보호	5	전쟁 없는	5
지속가능한 발전	5	풍족한	5	기후난민 없는	4
기후위기정책	4	물가안정	4	수질안전	4
적극적인관심	4	농업발전	3	식량보존	3
제로웨이스트	3	채식	3	핵발전 없는	3
경제적 안정	2	실천하는	2	잘사는	2
지속가능한 소비	2	화합	2	환경교육	2
미래에 당당한	1	불편함 감소	1	오존층보존	1
자유로운	1	평화	1	플라스틱 없는	1
해수면상승 없는	1	핵오염수 없는	1	희망	1

## 2) 종합

종합하면, 청소년이 스스로 그리는 미래에 대한 설문을 통해 청소년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미 기후위기와 그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기후위기를 몰고 온 현재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과제를 잘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불안과 걱정의 근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직접적으로 기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는 미래를 더 활발히 전개하고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기후위기를 둘러싼 현재의 부정적 감정이나 전망을 넘어서 스스로 살고 싶은 미래를 그려 봄으로써, 현재의 문제들을 타개할 힘과 목표를 주체적으로 세우고, 실현할 길을 주도적으로 찾게 될 것이다.

다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안전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에너지 개발”(52.3%)을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청소년이 앞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핵발전이 필요한가?”의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13.6%)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51.6%)를 꼽았다는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와 핵발전의 문제 사이에서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핵발전의 위험에 관해 물었을 때도 전체 81.4%가 “대략” 또는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제1의 과제를 에너지 전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핵발전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더 깊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 III. 결론

#### 1. 종합

이 연구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와 탈핵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천과 요구를 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기후위기가 인간의 지나친 활동과 산업화의 결과라는 점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보였다. 조사 결과 98.8%의 응답자가 기후위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은 이들의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기후위기가 자신의 삶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며,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서적 영향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응답자 중 약 절반은 기후위기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고 답했으며, 주요 감정으로는 위기감, 무력감, 불안감이 꼽혔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감정적으로도 더 큰 영향을 받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높을수록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개인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답변하는 경향이 높은 바, 기후위기로 인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더라도 이러한 감정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역할을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시에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와 기후위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대했으며, 개인에게는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제로 약 92%의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인적 실천과 행동을 하고 있었다.

반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도 많지 않았다. 청소년은 단체 활동이나 정책 제안과 같은 조직적 참여에 대해서는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약 15%의 청소년만이 캠페인, 기후위기 관련 모임 참여 등 집단적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와 탈핵 문제를 연결 지어 이해하기 시작했으나, 탈핵의 위험성과 핵발전 대안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탈핵 관련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었음을 시사하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핵에너지의 위험성과 방사성 폐기물 문제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향후 정책 및 교육적 접근에서 보완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와 탈핵 문제를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의미 있는 성별의 차이이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감정,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전망, 핵발전의 필요성 등에서 여성 청소년들은 남성 청소년들보다 비교적 뚜렷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기후위기, 핵발전과 같은 삶의 환경적 변화와 위협적 요소가 여성 청소년들 지금의 삶의 질과 미래 전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의 적극적 실천에 대한 인식도 매우 높았던 것을 고려할 때, 자신들이 인식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길을 찾아가도록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더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제안

이 연구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기후위기와 탈핵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이 위 문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실천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후위기와 탈핵 문제는 단순히 환경 관련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정의와 연관된 사회적 도전이다.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세대로, 이들의 의견과 참여는 단순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청소년을 정책 결정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으로만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듣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정부 위원회,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자문단을 구성하여 핵발전 및 기

후위기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토론회, 정책 공모전 등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단순히 의견과 제안 수집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 변경 및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핵발전에 대한 청소년의 실천과 주체성은 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기후위기 및 탈핵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성립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기후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데 시간, 정보, 참여 기회 등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교과과정 내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일괄 교육보다는 성별과 나이 등 청소년의 집단적 특성과 관심도 및 인식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하며,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자율적인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작은 변화를 존중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와 국가 차원의 변화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개인적 실천에서 캠페인, 정책 제안, 사회적 협력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와 탈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원을 마련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탈핵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여전히 위험성과 대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이나 또래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통해 청소년이 문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또한 추가 연구를 통해 왜 핵발전에 대한 인식이 기후위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지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진행한 YWCA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YWCA에는 "Y-틴-키다리 학교"라는 청소년 운동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각각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체적인 모임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생태계"라는 주제로 2024년 전국 회원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첫째는 국제화를 통해 탈핵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탈핵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가 부족하며, 일반 시민들의 관련 경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 핵발전소가 위협이 되었던 지역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YWCA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탈핵, 생명,

평화에 대한 담론을 구축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는 Y-틴-키다리 선배 모임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핵발전은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 심각성을 유지해야 한다. Y-틴-키다리 학교의 선배들과 모임을 지속하며,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주제로 삼아 강조한다면, 본 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인식과 행동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되며, 현세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그들의 주체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는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

### 3. 연구를 마무리하며

2024년 12월, 청소년들은 “응원봉”을 들고 여의도에 모였다. 어둠이 폭력과 함께 득세할 때, 가장 빛나는 응원봉을 가지고 나와 비폭력과 연대로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였다. 이들의 주체성과 표현은 제도적 학교의 한계를 넘어서며 촛불 소녀의 저항과 맥을 같이한다. 청소년들은 이번 사태에 전혀 책임이 없는,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은 주체들이지만 응원봉을 흔들며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였다. 튜베리의 수업 거부권을 초월하여 이들의 행동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표현 방식으로써 주체적 인식과 실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며, 기성세대가 투표권을 행사해 만든 국가적 불의와 반란을 해체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기성세대가 오늘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자책하고 낙담할 때, 청소년들은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와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분노를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아 올바른 인식을 인식하고 끝까지 정의를 향한 목소리를 높이며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주체성과 주도력은 기후위기와 핵발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에서도 빛을 발하며 청소년들이 더 주도적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에 참여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Arendt, Hannah. "Crisis in Education." in *Between Past and Future: Six Exercises in Political Thought*.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1.
- Biesta, Gert. *World-Centered Education: A View for the Present*. New York: Routledge. 2021.
- Carrington, Damian. "'Our leaders are like children,' school strike founder tells climate summit." *The Guardian*, 2018년 11월 10일.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dec/04/leaders-like-children-school-strike-founder-greta-thunberg-tells-un-climate-summit>(2024년 11월 19일 접속).
- White, Lynn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 no. 3767 (1967): 1203-1207. doi: 10.1126/science.155.3767.1203.
- 김민주, 이성희, 신동훈, "아동 권리 관련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아동·청소년 인식 및 대응 활동 참여 실태 조사." *에너지기후변화교육* 13권, 1호 (2023): 51~69. doi: 10.22368/ksecce.2023.13.1.51.
- 김인성. "핵오염수? 온난화로 수산자원 위기??? '바다숲'해조류 주목해야." *환경일보*, 2024년 12월 2일.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114>(2024년 12월 12일 접속).
- 김종민, 손다정, 남미자. "경기도 초·중·고등학생 기후위기 행동의 영향요인 분석: 기후위기 위험인식과 생태시민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9권, 4호 (2021): 217-218. doi: 10.30916/KERA.59.4.215.
- 박기용. "기후위기에 원전? 비싸고 느린 '라라랜드'일 뿐." *한겨레*, 2024년 11월 25일.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68932.html](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68932.html)(2024년 12월 12일 접속).
- 박미영. "한화진 탄핵위원장, COP29 참석...尹정부 기후위기 해결 노력 소개." *뉴시스*, 2024년 11월 11일. <https://v.daum.net/v/20241111145058325>(2024년 11월 11일 접속).
- 서어리. "한국, 최고 기후악당 등극... '오늘의 화석상.'" *프레시안*, 2024년 11월 20일.  
<https://v.daum.net/v/20241120130652394>(2024년 11월 20일 접속).
- 원영희, 구정혜, 서다미, 김홍수. "한국YWCA연합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좌담회." *기독교사상*, 760호 (2022): 48-81.
- 이동연. "청소년은 저항하는가? 청소년 주체형성의 다중성 읽기." *오늘의 문예비평* 2009 봄 통권, 72호 (2009): 23-45.
- 이성희, 변성국, 조정림, 신동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참여방안 연구." *에너지기후변화교육* 13권, 2호 (2023): 103-124. doi: 10.22368/ksecce.2023.13.2.103.
- 최무영. "핵을 원자력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레프트21*, 2011년 3월 24일.  
<https://ws.or.kr/article/9466>(2024년 12월 27일 접속).
- 한국YWCA연합회. "2023 한국YWCA 정책협의회, 탈핵기후생명운동 전국중점운동으로." 2013년 10월 18일. [https://ywca.or.kr/board\\_press/21556/](https://ywca.or.kr/board_press/21556/).
- 한국YWCA연합회. "250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 2020년 4월 28일.  
[https://ywca.or.kr/activity\\_news/3380/](https://ywca.or.kr/activity_news/3380/).
- 한국YWCA연합회. "Y-틴과 함께하는 청소년 RE100 : 기후행동." 2022년 9월 15일.

[https://ywca.or.kr/activity\\_news/15899/](https://ywca.or.kr/activity_news/15899/).

한국YWCA연합회. "고리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YWCA 성명서." 2015년 6월 12일.

[https://ywca.or.kr/board\\_press/1399/](https://ywca.or.kr/board_press/1399/).

한국YWCA연합회. "제1차 한국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2014년 3월 11일.

[https://ywca.or.kr/board\\_press/1301/](https://ywca.or.kr/board_press/1301/).

현명주, 김남수. "경계의 관점으로 본 청소년의 기후결석시위: 정체성, 학교 교육, 시위문화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34권, 2호(2021): 151-166.

황세영, 강경균, 김남수.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 0 (2022): 1-309.

황세영. "청소년 기후행동으로서 탄소중립 정책 제안 활동 사례 연구: 행위주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4, 4호 (2023): 115~141. doi: 10.14816/sky.2023.34.4.115.

## IV. 부록

### 1) 설문지

#### <기후위기와 탈핵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조사>

YWCA생명비전연구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을 마주한 시대 속에서 현재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당사자인 청소년이 기후 위기와 핵발전을 해결하는 사회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와 탈핵에 관한 인식과 실천현황, 미래 비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응답은 YWCA를 비롯한 환경 관련 시민 단체들로 하여금 청소년이 주도하는 운동을 만들어 나가고, 사회 각 기관에 전달되어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자료가 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내용 : 기후변화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 활동 및 정책, 핵발전(원자력 발전)과 탈핵운동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과 실천 현황 조사, 청소년이 구상하는 기후위기 없는 미래 사회에 관한 조사

▶ 조사기간 : 2024년 7월 25일~8월 25일

▶ 조사대상 : 한국에 거주 중인 13세(2010년 출생자) ~ 18세(2005년 출생자) 청소년

※본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에 관한 보안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은 YWCA 생명비전연구 담당자 유은비 간사에게 연락바랍니다.  
(02-6952-4772/ [eunbeeyu@ywca.or.kr](mailto:eunbeeyu@ywca.or.kr))

#### 연구 참여 동의서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의 정보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1. 이름 \_\_\_\_\_

2.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서명)

#### 기본정보

1. 나이(출생년도 기준)

- ① 13세(2010년생) ② 14세 ③ 15세 ④ 16세 ⑤ 17세 ⑥ 18세(2005년생)

2. 성별

-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④ 밝히지 않음

3. 사는 지역(○○도/특별시/광역시, ○○시/군/구) \_\_\_\_\_

4. 종교

- ① 기독교(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등 포함) ② 불교 ③ 기타 ④ 무교

**기후위기 인식**

1.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략 알고 있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모른다

2. 친구나 가족들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나요?

- ① 자주 이야기한다 ② 가끔 이야기한다 ③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④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3.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요?

- ① 잘 설명할 수 있다 ② 대략 설명할 수 있다 ③ 조금 설명할 수 있다  
④ 설명할 수 없다

4. 기후위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나요?

- ① 매우 많이 느낀다 ② 느낀다 ③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 ④ 전혀 느끼지 못한다

5. 기후위기를 몸으로 느낀다면, 어떤 경우에 그러한가요? (3개까지 선택 가능)

- ① 여름이 너무 덥고 길어졌다  
② 비가 갑작스럽고 강하게 내린다  
③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④ 낮선 전염병이 자주 나타난다  
⑤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이 많아졌다  
⑥ 생태계 변화로 인해 식량이 너무 비싸지거나, 살 수 없을 때가 있다  
⑦ 기타( )

6.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의 온도라고 몸으로 느끼고 있나요? 온도를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을 골라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기후감정**

1. 기후위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나 상태를 3가지 적어주세요.

2. 기후위기나 생태계 변화로 우울함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진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3. 기후위기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어떤 감정인가요? (복수응답 가능)

- ①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이 든다 ② 안전한 삶이 위협당해 불안하다
- ③ 정체를 알 수 없이 우울하다 ④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다
- 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화가 난다 ⑥ 잘 모르겠다 ⑦ 기타 ( )

**실천 현황**

1. 평소 생활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나요?
  - 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② 약간 실천한다 ③ 거의 실천하지 않는다
  - ④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2.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개인적인 실천을 하고 있나요? (복수응답 가능)
  - ① 전기 및 에너지를 절약한다 ②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 ③ 쓰레기를 줄인다
  - ④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⑤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공부모임에 참여한다
  - ⑥ 자동차 대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⑦ 텃밭이나 식물을 가꾼다
  - ⑧ 새것을 사기보다 중고물품을 사용한다 ⑨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린다
  - ⑩ 환경을 보호하거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 ⑪ 환경관련 단체를 만들거나 활동에 참여한다
  - ⑫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하거나 기후위기 관련 소식을 SNS로 공유한다
  - ⑬ 기타( )
3.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실천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약간 중요하다 ③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사회와 정책**

1. 당신이 생각하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 ① 기후위기는 인간의 지나친 활동(과도한 산업화 등)의 결과이다.
  - ② 기후위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③ 기후위기의 원인은 불확실하다. ④ 기타 ( )
2.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3. 효과적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우선순위 3가지 선택) ▶ \_\_\_\_\_ (\*예시: 2-5-7)

- 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 ②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③ 공장과 무역으로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탄소 중립 경영이 중요하다
- ④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지역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 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 ⑥ 기후위기 문제와 원인을 알려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 ⑦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올바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 ⑧ 모든 개인과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4.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나요? (우선순위 2가지 선택) ▶ \_\_\_\_\_ (\*예시: 2-5)

- ①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실행한다
- ②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법으로 강력히 규제한다
- ③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 또는 정책으로 지원한다
- ④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복지)를 강화한다
- ⑤ 기타 ( \_\_\_\_\_ )

5.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들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당사자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참여와 주체성**

1. 당신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참여가 필요할까요?

- ①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② 일상에서의 실천 정도의 참여로 충분하다
- ③ 관심을 갖는 정도로 충분하다 ④ 청소년은 이 문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3.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단체 활동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4. 만약 청소년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선순위 3가지 선택) ▶ \_\_\_\_\_ (\*예시: 2-5-7)

- ① 학교나 학원 생활로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② 활동에 대한 정보,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③ 활동을 만들고 지원하는 단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④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므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 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 ⑥ 예민하고 괜히 나서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 ⑦ 기타 ( \_\_\_\_\_ )

5.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더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전체 우선순위 선택) ▶ \_\_\_\_\_ (\*예시: 2-1-3-4)

- ① 기후위기 관련 교육과 활동을 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②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현장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③ 중요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내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④ 청소년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 ⑤ 기타 ( )

**탈핵에 관한 인식**

1. 핵발전(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략 알고 있다 ③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④ 처음 들어본다
2. 핵발전의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략 알고 있다 ③ 위험하다고 생각하나, 왜 위험한지 모른다
  - ④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노후 핵발전소 연장은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위험하므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② 위험하나 어쩔 수 없이 연장이 필요하다
  - ③ 위험 가능성이 낮아서 연장해도 된다 ④ 전혀 위험하지 않다
4.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위험하므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② 위험하나 어쩔 수 없이 건설해야 한다
  - ③ 위험 가능성이 낮아서 건설해도 된다 ④ 전혀 위험하지 않다
5. 오염수와 방사능 식품은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위험하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② 위험하나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 ③ 위험 가능성이 낮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전혀 위험하지 않다
6.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기후위기 없는 미래**

1. 당신은 기후 위기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긍정적일 것이다 ②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③ 부정적일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2. 그렇게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당신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생태/환경문제 3가지를 골라주세요.

- 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발생한다
- ② 핵발전소(원자력 발전소)가 지속적 운영되고 확대된다
- ③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멸종위기 생물종이 증가한다
- ④ 산과 강, 바다에 대한 막무가내 개발이 지속된다
- 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다

- ⑥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된다
- ⑦ 대량 채집이나 채굴로 인해 천연자원이 고갈된다
- ⑧ 제한된 자원(식량, 석유)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한다
- ⑨ 인수공통 감염병(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증가한다
- ⑩ 기타 ( )

4.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 ② 지역의 균형적 발전
- ③ 지속적인 경제성장
- ④ 경제적 부의 공평한 분배
- ⑤ 건강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
- ⑥ 안전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에너지 개발
- ⑦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 ⑧ 개인의 개성과 인격적인 성장을 중요시하는 교육
- ⑨ 차별과 편견, 불평등 해소
- ⑩ 전쟁 및 테러 등 생존을 위한 위협적 요소의 제거
- ⑪ 기타 ( )

5. 기후 위기가 없는 20년 후의 미래 사회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살고 싶은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주세요. (예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자유롭게 야외활동 하는 사회, 100퍼센트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 갑작스런 폭염이나 폭우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

## 2) 설문답변

나이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13세 (2010년생)	26	10.1%
14세 (2009년생)	19	7.4%
15세 (2008년생)	36	14.0%
16세 (2007년생)	34	13.2%
17세 (2006년생)	54	20.9%
18세 (2005년생)	89	34.5%

성별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여성	137	53.1%
남성	120	46.5%
기타	0	0.0%
선택하지 않음	1	0.4%
사는 지역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강원	11	4.3%
경기	76	29.5%
경남	2	0.8%
광주	1	0.3%
대구	1	0.3%
대전	5	1.9%
부산	3	1.2%
서울	125	48.4%
인천	16	6.2%
전남	2	0.8%
전북	9	3.5%
충남	3	1.2%
충북	4	1.6%
종교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기독교(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등 포함)	64	24.8%
불교	24	9.3%
무교	170	65.9%
기타	0	0.0%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잘 알고 있다	70	27.1%
대략 알고 있다	128	49.6%
조금 알고 있다	57	22.1%
잘 모른다	3	1.2%
친구나 가족들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나요?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자주 이야기한다	44	17.1%
가끔 이야기한다	161	62.4%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45	17.4%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8	3.1%	
<b>기후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잘 설명할 수 있다	54	20.9%	
대략 설명할 수 있다	123	47.7%	
조금 설명할 수 있다	67	26.0%	
설명할 수 없다	14	5.4%	
<b>기후위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나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매우 많이 느낀다	122	47.3%	
느낀다	127	49.2%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	6	2.3%	
전혀 느끼지 못한다	3	1.2%	
<b>기후위기를 몸으로 느낀다면, 어떤 경우에 그러한가요? (3개까지 선택 가능)</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여름이 너무 덥고 길어졌다	212	83.1%	
비가 갑작스럽고 강하게 내린다	168	65.9%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69	27.1%	
낮선 전염병이 자주 나타난다	100	39.2%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이 많아졌다	94	36.9%	
생태계 변화로 인해 식량이 너무 비싸지거나, 살 수 없을 때가 있다	73	28.6%	
기타	0	0.0%	
<b>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의 온도라고 몸으로 느끼고 있나요? 온도를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을 골라주세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IMAGE] 보기1 	72	27.9%	
[IMAGE] 보기2 	96	37.2%	
[IMAGE] 보기3 	62	24.0%	
[IMAGE] 보기4 	13	5.0%	
[IMAGE] 보기5 	5	1.9%	
[IMAGE] 보기6 	3	1.2%	
[IMAGE] 보기7 	2	0.8%	
[IMAGE] 보기8 	1	0.4%	
[IMAGE] 보기9 	1	0.4%	
[IMAGE] 보기10 	3	1.2%	
<b>기후위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나 상태를 3가지 적어주세요. (주관식 응답 - 응답순위별)</b>			
순위	대표단어	유사단어	응답 수
1	폭우	장마/홍수/침수/태풍/폭풍/폭풍우/해일/비/스콜/우기	77

2	더위	무더위/불볕더위/너무 더운 날씨/더움/덥다/더워요/폭염/여름/끓는다/땀	74
3	온난화	지구온난화	51
4	멸종	멸종위기종/멸종위기동물/동물멸종/멸종동식물/생물멸종	39
5	가뭄	물부족	30
6	기후변화	온도변화/이상기후/이상기온/기상이변	25
7	생태계	생태/생태계파괴/생태계분열/동물/동식물/동식물의변화	23
8	산불	불/화재	22
9	사고	재난/기후재난/자연재해	21
10	빙하	남극빙하/얼음/빙하녹음/빙하소멸/빙하융해/빙하감소/녹는다	20
11	온도	기온/온도상승/온도증가/너무높은온도/고열/고온	19
11	온실가스	가스/프레온가스/이산화탄소/탄소/탄소배출/탄소배출량)	19
13	불안	큰일났다/걱정	15
13	위험		15
15	대기	대기오염/공기오염/미세먼지	14
15	해수면	해수면상승	14
17	전염병	감염병/병/질병/바이러스/WHO	13
17	북극곰		13
19	오염	환경오염	12
20	날씨	극한날씨/극단적날씨	11
20	지구		11
22	극지방	남극/북극	9
22	열대야		9
22	지진		9
22	환경		9
26	멸망	종말/죽음/타노스	8
27	추위	강추위/한파/겨울추위/춥다	7
28	사람	인간/인류	6
28	위기		6
28	파괴	환경파괴	6
31	산사태		5
31	식량	식량 위기/식량난/미래식량난/식량	5
31	심각함	경고	5
31	산업	기업/산업혁명/어업/축산업	5
35		변화(전환), 사막화, 쓰레기(쓰레기섬), 지속가능성(지속가능한 발전), 친환경 에너지(재생에너지/태양광/수자원), 해양생태계(해양생물손실/해양생물위기/물고기/산호), 화가남(분노/짜증난다)	4
42		기후난민, 기후협약(파리조약/파리기후협약), 막막함(답답함), 사계절(사계절이 없어짐/사라지는 봄가을), 생물다양성(생물다양성감소), 에너지효율(에너지전환), 친환경, 폭설(강설), 해양 산성화(산성화)	3
51		양극화(극과 극), 바다, 바다수온상승(수온), 벌레, 산림(나무), 아픔(고통),	2

	암울(비극적인), 에어컨, 열대화현상(열대화시대), 예측불가(변덕스러움), 오존층(오존층파괴), 온실(온실효과), 욕심, 재앙(재앙의 시작), 재활용, 정부(정책), 조급함(긴박함), 태양(햇빛), 플라스틱		
70	가난, 가속화, 검정색, 고착, 공포, 구조, 국제협력, 그레타 툰베리, 기후, 기후약자, 기후정의, 꿀벌, 나빠짐, 난제, 낭비, 냉각, 무기력함, 미래, 발자국, 불평등, 불필요한 변화, 비건, 비지속성, 세상, 소비, 슬픔, 시민의식, 에너지, 에너지부족, 엘니뇨, 열대, 열대우림파괴, 임계점, 적색, 전기과다, 지구 열대화, 지구의 아픔, 짹짹하다, 토네이도, 혜택, 화석연료, esg	1	
<b>기후위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나 상태를 3가지 적어주세요. (주관식 응답 - 주요 유형별)</b>			
순위	유형	단어	응답 수
1	자연재해	사고, 재난, 기후재난, 폭우, 장마, 홍수, 침수, 태풍, 폭풍, 폭풍우, 해일, 비, 스콜, 우기, 가뭄, 물 부족, 사막화, 산불, 불, 화재, 엘니뇨, 지진, 산사태, 토네이도, 폭설, 강설	173
2	날씨 문제	극한 날씨, 극단적 날씨, 기후변화, 온도변화, 이상기후, 이상기온, 기상이변, 더위, 무더위, 불볕더위, 너무 더운 날씨, 더움, 덥다, 더워요, 폭염, 여름, 끓는다, 땀, 열대야, 열대, 태양, 햇빛, 추위, 강추위, 한파, 겨울추위, 춥다, 냉각, 사계절, 사계절이 없어짐, 사라지는 봄가을	133
3	멸종위기	멸종, 멸종위기종, 멸종위기동물, 동물멸종, 멸종동식물, 생물멸종,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감소, 생태계, 생태, 생태계파괴, 생태계분열, 동물, 동식물, 동식물의 변화, 해양생태계, 해양생물손실, 해양생물위기, 물고기, 산호, 북극곰, 꿀벌, 벌레	85
4	지구온난화	온난화, 열대화 현상, 열대화 시대, 지구 열대화, 온도, 기온, 온도상승, 온도증가, 너무 높은 온도, 고열, 고온, 기후협약, 파리조약, 파리기후협약	76
5	해양문제	바다, 해양 산성화, 산성화, 해수면, 해수면상승, 바다수온상승, 수온, 남극, 북극, 극지방, 빙하, 남극빙하, 얼음, 빙하녹음, 빙하소멸, 빙하용해, 빙하감소, 녹는다	50
6	부정적 감정	조급함, 긴박함, 불안, 큰일났다, 걱정, 슬픔, 암울, 비극적인, 무기력함, 화가 남, 분노, 짜증난다, 막막함, 답답함, 공포, 아픔, 고통, 심각함, 경고, 나빠짐, 짹짹하다, 검정색, 적색	40
7	위기	위험, 오염, 환경오염, 파괴, 환경파괴, 지구의 아픔	40
8	대기 문제	오존층, 오존층파괴, 온실, 온실효과, 온실가스, 가스, 프레온가스, 이산화탄소, 탄소, 탄소배출, 탄소배출량, 대기오염, 공기오염, 미세먼지	37
9	환경	환경, 지구, 세상, 기후	22
10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효율, 에너지전환, 에너지부족,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태양광, 수자원, 화석연료, 전기과다, 에어컨	13
11	질병	전염병, 감염병, 병, 질병, 바이러스, WHO	13

12	사람	사람, 인간, 인류, 기후난민, 기후약자, 그레타 툰베리, 시민 의식	12
13	미래	재앙, 재앙의 시작, 멸망, 종말, 죽음, 타노스, 미래	11
14	구조	국제협력, 정부, 정책, 기업, 산업, 산업혁명, 어업, 축산업	9
15	양상	가속화, 고착, 극과 극, 양극화, 난제, 예측불가, 번덕스러움, 임계점	8
16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섬, 플라스틱, 재활용	8
17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 비지속성, esg	6
18	변화	변화, 전환, 불필요한 변화	5
19	식량위기	식량 위기, 식량난, 미래식량난, 식량	5
20	소비	욕심, 낭비, 소비, 가난	5
21	친환경	친환경, 비건	4
22	기후정의	불평등, 혜택, 기후정의	3
23	산림	산림, 나무, 열대우림 파괴	3

**기후위기가 생태계 변화로 우울함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진 적이 있나요?**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있다	127	49.2%
없다	53	20.5%
잘 모르겠다	78	30.2%

**기후위기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어떤 감정인가요? (복수응답 가능)**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이 든다	124	48.1%
안전한 삶이 위협당해 불안하다	88	34.1%
정체를 알 수 없이 우울하다	30	11.6%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다	97	37.6%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화가 난다	55	21.3%
잘 모르겠다	58	22.5%
기타	4	1.6%

기타 답변	없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화가 난다	
밖이 너무 더워서 화가난다	
승리호 처럼 지구를 버려야 할 수 도 있어서	

**평소 생활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나요?**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53	20.5%
약간 실천한다	184	71.3%
거의 실천하지 않는다	19	7.4%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2	0.8%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나요? (복수응답 가능)**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전기 및 에너지를 절약한다		113	44.1%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다		116	45.3%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		150	58.6%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공부모임에 참여한다		38	14.8%
자동차 대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83	32.4%
텃밭이나 식물을 가꾼다		30	11.7%
새것을 사기보다 중고물품을 사용한다		61	23.8%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린다		56	21.9%
쓰레기를 줄인다		113	44.1%
환경을 보호하거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41	16.0%
환경관련 단체를 만들거나 활동에 참여한다		34	13.3%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하거나 기후위기 관련 소식을 SNS로 공유한다		40	15.6%
기타		4	1.6%
기타 답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중		
	삼푸, 바디워시 등 샤워용품 사용하지 않기		
	(개인적으로 하는 실천은 아니지만) 학교 차원에서 비건을 해서 주5일 채식 식단을 먹는다.		
	비건을 하고있다		
<b>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실천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매우 중요하다	148	57.4%	
약간 중요하다	109	42.2%	
중요하지 않다	1	0.4%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b>당신이 생각하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기후위기는 인간의 지나친 활동(과도한 산업화 등)의 결과이다.	220	85.3%	
기후위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34	13.2%	
기후위기의 원인은 불확실하다.	2	0.8%	
기타	2	0.8%	
기타 답변	어쩔수 없이 발생하지만 인간이 더 가속화 시키는것 같다		
	결국 인류가 생기기 전에도 여러번의 기후 위기가 있었기에 언젠가는 생길 기후 위기였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기후 위기는 순수하게 인간의 과욕으로 인한 결과물이다		
<b>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나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매우 그렇다	49	19.0%	

약간 그렇다	126	48.8%
그렇지 않다	72	27.9%
전혀 그렇지 않다	11	4.3%
<b>효과적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우선순위 3가지 선택 -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b>		
답변		누적 점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214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95
공장과 무역으로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탄소 중립 경영이 중요하다		261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지역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100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169
기후위기 문제와 원인을 알려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169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올바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83
모든 개인과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257
<b>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나요? (우선순위 2가지 선택 - 1순위 2점, 2순위 1점)</b>		
답변		누적 점수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실행한다		246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법으로 강력히 규제한다		242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 또는 정책으로 지원한다		154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복지)를 강화한다		132
기타		0
<b>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들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당사자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나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매우 그렇다	41	15.9%
그렇다	140	54.3%
그렇지 않다	66	25.6%
전혀 그렇지 않다	11	4.3%
<b>당신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매우 그렇다	53	20.5%
그렇다	174	67.4%
그렇지 않다	31	12.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b>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참여가 필요할까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143	55.4%
일상에서의 실천 정도의 참여로 충분하다	112	43.4%
관심을 갖는 정도로 충분하다	3	1.2%
청소년은 이 문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0	0.0%
<b>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단체 활동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매우 그렇다	69	26.7%
그렇다	149	57.8%
그렇지 않다	33	12.8%
전혀 그렇지 않다	7	2.7%
<b>만약 청소년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선순위 3가지 선택 -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b>		
답변	누적 점수	
학교나 학원 생활로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410	
활동에 대한 정보,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207	
활동을 만들고 지원하는 단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163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므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298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240	
예민하고 괜히 나서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225	
기타	5	
기타 답변	관심 부족	
	귀찮고 자신의 시간을 사용해서 참여해야 하기 때문	
	남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는다	
<b>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더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전체 우선순위 선택 - 1순위 5점, 2순위 4점, 3순위 3점, 4순위 2점, 5순위 1점)</b>		
답변	누적 점수	
기후위기 관련 교육과 활동을 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971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현장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950	
중요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내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939	
청소년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752	
기타	1	
기타 답변	응원해 주어야 한다	
<b>핵발전(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잘 알고 있다	34	13.2%

대략 알고 있다	148	57.4%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71	27.5%
처음 들어본다	5	1.9%
<b>핵발전의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잘 알고 있다	60	23.3%
대략 알고 있다	150	58.1%
위험하다고 생각하나, 왜 위험한지 모르겠다	47	18.2%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	0.4%
<b>노후 핵발전소 연장은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매우 위험하므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116	45.0%
위험하나 어쩔 수 없이 연장이 필요하다	134	51.9%
위험 가능성이 낮아서 연장해도 된다	7	2.7%
전혀 위험하지 않다	1	0.4%
<b>신규핵발전소 건설은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매우 위험하므로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112	43.4%
위험하나 어쩔 수 없이 건설해야 한다	126	48.8%
위험 가능성이 낮아서 건설해도 된다	20	7.8%
전혀 위험하지 않다	0	0.0%
<b>오염수와 방사능 식품은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매우 위험하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170	65.9%
위험하나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76	29.5%
위험 가능성이 낮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1	4.3%
전혀 위험하지 않다	1	0.4%
<b>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매우 필요하다	35	13.6%
어느 정도 필요하다	133	51.6%
전혀 필요하지 않다	41	15.9%
잘 모르겠다	49	19.0%
<b>당신은 기후 위기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나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긍정적일 것이다	22	8.5%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36	14.0%
부정적일 것이다	173	67.1%

잘 모르겠다	27	10.5%
<b>그렇게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응답)</b>		
부정적		
식량도 줄어들 것이고 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질 것이다. 전쟁이 발생할 것이고 평화로운 삶에서 멀어진다.		
기후 위기로 인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가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사회가 실천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하고 또 기후 위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 이후 긍정적인 경향보단 부정적인 경향이 두드러진다. 일상 생활이 더워지고, 가을과 봄이 사라지며, 재배 가능한 과일이 계속 바뀌는 건 평소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변화이다. 더 나아가, 산불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늘어갈수록 그 대상이 쉽게 되는 취약층이 피해를 입기에 전 인류적으로 기후위기는 해악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기후위기가 심해져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간혹 들은 것 같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고 조금 더 진행된다면 이젠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		
전보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미래도 우리가 똑같이 이상태면 부정적일 것이다		
이미 몇 년 전 과거에 비해 기후위기가 가속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현재 사회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화합되지 않는 분위기를 띄고 있다. 그러니 이보다 기후 위기가 심해진 미래의 모습은 긍정적일 수가 없을 것 같다.		
기후 위기 상태는 유지가 아닌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로 인해 많은 사람들 생태가 피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와 녹는 빙하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		
물론인류를포함한많은것들이계속진화해서바뀌어진삶에맞게살아갈수도있겠지만 당장은변화가빠르게일어나고있기때문에대재앙으로오지않을까싶다.		
점점 기후가 나빠지고 있어서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전혀 좋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기후위기는 날로 더 심해지고 있고 결국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살 수 없는 날이 올 것 같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술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를 막기는 불가능하다. 고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이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고 기후 위기가 생기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생물들에게도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다		
기후위기라는 단어자체가 지구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써는 정부나 기업 등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 미래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현 환경부에서 일회용품과 관련된 규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행		

동들을 볼수록 저희의 미래 사회가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도 예전과 달리 많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의 수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에 비해 인간들은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과연 내가 살아갈 지구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도 지금의 사상의 생물 종들이 많이 사라지며 피해를 입는데 미래가 되었을 땐 이 모습이 사라질 리가 없으며 오히려 더 악화가 될 것이다.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면상승, 많은 생물을 멸종위기로 변화시키는 것, 질병, 식량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환경오염은 점점 심해지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하지 않기에 미래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상태일 것이다.
저는 기후 위기라는 것은 지구가 멸망할 날, 인간이 지구에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 합니다 기후 위기는 지구는 물론 인간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현재 상황을 통해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매우 부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걸이라고 확신합니다(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나아지려는 모습이 안보여서
환경 파괴가 심각해진다.
점점 지구가 막 가져가는 게 느껴져서
지금도 기후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전과 비교하였을 때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진 게 없다
점점 심해지고 있다
기온이 높아져서 우리나라에 없던 열대어들이 우리바다에 출몰하고 있고,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 같다. 지금보다 더 더워지면 살기 힘들 것 같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예쁜 자연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곳이 물에 잠길 것이다.
대부분 노력을 안 하고 있기에
환경의 변화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이다
기후 위기의 뜻은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의 증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정적일 것 같다고 생각한다.
기후 위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함으로.
여름에는 점점 더워지고 더울수록 에어컨을 트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다시 지구가 아파지고...계속 악영향의 연속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기후 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기후 위와 함께 재난이 발생할 것 같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나, 그에 비해 일어나는 변화는 미미한 것 같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원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개인의 의지에 따른 실천에만 많은 것이 달려있는 것 같다.
악순환의 반복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날씨가 더 더워지면 더 에어컨을 틀고 더 더워지면 얼음도 녹고 대륙들이 가라앉는다.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고기온을 찍는 등, 계속 악화되는 모습이 현저하게 보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지금과 같을 것 같다.
점점 나날이 기온은 올라가고 잦은 폭우와 폭염 등등 다양한 현상이 온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더욱 힘든 날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단 현실에 편리함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점점 지구는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변할 거다.
지금으로서도 길어진 여름과 녹고 있는 빙하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계속된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더 안 좋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거 같아서
지금까지 기후위기를 겪은 지구는 그 후 생물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러기에 어찌면 인류의 멸종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는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사람들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생각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아서 요즘보다 더 심각해질 것 같다
기후 위기로 인해 많은 환경이 바뀔 것이고 그로 인한 생태계에 큰 위험이 올 것이라고 예 상하기 때문
더워져서이다
점점 가속화하는 환경파괴 속도를 보았을 때, 미래는 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가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이는 식량 가격 상승 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질 것 같다
기후위기를 당장 막지 않는다면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다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는 건 같기 때문
기후위기로 생기는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우리 삶을 더 살기 힘들게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심각해 질 것 같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모두들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생계유지에만 매달려야 할 것이기 때문
기상이변들에 의해 지금 지어진 집이나 인프라 등의 기반시설이 부식되고 부서지면서 기후 위기가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되돌리기엔 너무 먼 길을 온 것 같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단체를 본 적이 없어서
가난한사람, 여성, 노인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되며 부익부빈익빈 이 심화되고 차별과 혐오가 심해질 것이다
현재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상태도 굉장히 심각한데,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래에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자체가 좋은 의미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많이 발생
기후위기는 세계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인간이 막는다 해도 한계가 있기에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기 때문에
생태계변화
일상 속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관

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걱정됩니다.
너무나 더운 여름을 겪어 보면서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위기가 더 커질 것이다
매일매일 바뀌는 현실 속에서 좀 더 심해질 것 같음
시대에 맞는 실행력이 부족함
환경이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서
기후위기가 와서 자연이 파괴되면 인류가 살기 힘들어질 거 같아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나날이 악화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
지구온난화, 물 부족, 빙하녹음
현재, 기후위기를 위해서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도 크지 않은 것 같아 누적되면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기후 위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 하였고, 위기가 오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상황들이 누적되어 현재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다가올 것만 같다.
폭염, 가(뭄), 홍수, 태풍 등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주변에 기후 위기에 대해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 했고, 뉴스 같은 걸 봐도 특별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위험하기 때문 입니다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식량 부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자원이 고갈되어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나쁜 결과를 만들 것 같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뉴스 같은 걸 보면 별로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들었다
기후 위기가 실제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기후 난민 출현
인구가 계속 늘어나므로
점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어서
점점 해수면이 상승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안 쓰고 살기 어려워니
먹을 수 있는 식량 이 부족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폭염이나 추위에 떨 수밖에 없어진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안 좋아서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서
더 안 좋아질 것
지금도 이렇게 덥고 경제가 안 좋은데 미래에는 뻔하다
점점 더 심해지는 거 같아서
갈수록 악화될 테니

기후위기는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여러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상승폭이 줄어들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더 예측하기 힘들 것 같아서
상태는 계속 안 좋아지니까
앞으로 더 많은 감염병이 생길 것 같아서
이익을 위한 개발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실천이 부족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아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서
점차 안 좋아지고 있는 현실에..
이상 기후로 날씨 예측이 무의미해짐.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더 자주 퍼질 가능성 높아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것 같다
체감적으로 느껴져요
야생동물 멸종으로 생태계 균형이 깨질 거다
온난화로 북극곰 친구들 살 곳 없어짐.
산불이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해서 공기질 완전 망가짐
열대야가 계속 되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극한 한파로 난방비 폭등하고, 추위 때문에 사람들 힘들어짐.
식수 부족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
폭풍과 허리케인이 더 강력해져서 인프라가 망가짐.
가면 갈수록 기후가 나빠짐
자연재해가 잦아지면 보험료가 엄청 오를 거야.
에너지 위기가 오면 전기도 마음껏 못 쓰게 될지도.
기름값 상승하면서 생활비도 같이 오를 듯.
기후 난민이 늘어나서 사회 혼란
이미 벌써 기후가 좋지 않다
이미 진행 중이라 더 나빠질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점점 더워지기 때문
해수면 상승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해 저지대 지역이 침수될 위험이 커질 것이다.
식량 불안정
극단적 기후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사회적 불안정이 될 것이다. 자원부족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이 증가할 거 같다.
식량감소
환경오염
기후 위기를 하얀 도화지로 비유 하였을 때 하얀 도화지 위에 이미 펜으로 낙서된 것은 연

<p>필보다 지우기 위해 더 열심히 지워야 하는데 지워야 하는 걸 알지만 이미 지우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새 도화지에 적응한 사람들은 지워야 함을 알지만 적극적으로 실천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기후위기 극복이 쉽지 않음		
기후위기로 인해 환경문제, 전염병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갈수록 더워지고 추워져서.		
노력하는 사람들만 노력하고 있어서 쉽게 기후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할것 같아요.		
계속 안 좋아질 거 같아서		
기온이 계속 상승되고 있어서		
급속도로 변해서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 외에도 태양활동이 크다고 들어서		
많이 기후가 바뀌기 때문이		
생태계 변화		
날씨 변화가 커서		
최종적으로 인류의 멸종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구가 망할것 같다		
온도가 올라가고 생태계가 망가지면 결국 잘못 없는 동식물만 죽는다		
매우 더운 날씨와 불규칙적인 자연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소화해 낼 수 없는 날씨가 생길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발생빈도가 증가하였고 멸종위기 동물도 늘어났다. 이 이유가 기후위기 하나뿐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기후위기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 기후위기가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앞으로 지구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상하지 않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하기 때문에		
지구가 안 멀쩡한데 내가 멀쩡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부정적인데 더 심해진 미래엔 훨씬 부정적인 것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서		
<b>당신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생태/환경문제 3가지를 골라주세요.</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발생한다	128	49.6%
핵발전소(원자력 발전소)가 지속적 운영되고 확대된다	69	26.7%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멸종위기 생물종이 증가한다	98	38.0%
산과 강, 바다에 대한 막무가내 개발이 지속된다	75	29.1%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다	87	33.7%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된다	97	37.6%
대량 채집이나 채굴로 인해 천연자원이 고갈된다	51	19.8%
제한된 자원(식량, 석유)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한다	76	29.5%
인수공통 감염병(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증가한다	93	36.0%

기타		0	0.0%		
<b>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가능)</b>					
답변		답변수	답변비율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101	39.1%		
지역의 균형적 발전		67	26.0%		
지속적인 경제성장		58	22.5%		
경제적 부의 공평한 분배		72	27.9%		
건강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		87	33.7%		
안전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에너지 개발		135	52.3%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91	35.3%		
개인의 개성과 인격적인 성장을 중요시하는 교육		78	30.2%		
차별과 편견, 불평등 해소		71	27.5%		
전쟁 및 테러 등 생존을 위한 위협적 요소의 제거		108	41.9%		
기타		1	0.4%		
기타 답변	참여를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기후위기가 미래에 가져올 영향들을 생각하며 조금씩이라도 환경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는 것				
<p><b>기후 위기가 없는 20년 후의 미래 사회 모습을 상상해보세요.</b>  <b>당신이 가장 살고 싶은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주세요.</b>  <b>(예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자유롭게 야외활동 하는 사회, 100퍼센트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 갑작스런 폭염이나 폭우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 등)</b></p>					
키워드	답변 횟수	키워드	답변 횟수	키워드	답변 횟수
깨끗한 공기	64	저탄소경제	7	핵발전 없는	3
적당한 기온	46	안전한 먹거리	6	경제적 안정	2
재해 없는	41	행복한	6	실천하는	2
고통 없는	32	깨끗한	5	잘사는	2
걱정 없는	27	생태계보호	5	지속가능한 소비	2
재생에너지	25	전쟁 없는	5	화합	2
야외활동	22	지속가능한 발전	5	환경교육	2
공존	21	풍족한	5	미래에 당당한	1
전염병 없는	19	기후난민 없는	4	불편함 감수	1
뚜렷한 사계절	16	기후위기정책	4	오존층보존	1
생명보호	14	물가안정	4	자유로운	1
안전한	14	수질안전	4	평화	1
생물다양성	10	적극적인관심	4	플라스틱 없는	1
자연회복	10	식량보존	3	해수면상승 없는	1
효율적자원사용	9	농업발전	3	핵오염수 없는	1
평등한	8	제로웨이스트	3	희망	1
혁신기술	8	채식	3		
일반답변(기후 위기없는)	5	미답변	2	부정적답변	6